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린이집 보육실습에 대한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

2018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황 혜 영

어린이집 보육실습에 대한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황 혜 영

인 준 서

황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경험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해서 실습 지도교사들이 어떠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둘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지도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셋째,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지도교사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직장,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실습지도의 경험이 2회 이상 있는 현직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인당 3회씩 총 30회의 개별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에는 문자 혹은 전화를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한 녹음자료와 전사본, 현장 기록노트, 보육실습일지, 연구 참여자 저널이며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대화를 통해 예비보육교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과 함께 보육실습의 내용, 어린이집 일정, 근무상의 유

의점을 소개하고, 예비보육교사를 고려하여 실습일정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교실의 재정비를 비롯하여 영유아들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교수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교구계획서 작성 및 제작 과정을 조력하는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자의 역할과 함께 어린이집 생활에서 겪게 되는 실제 보육교사의 경험을 예비보육교사에게 공유하고 소통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주변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습 지도교사들은 물리적 환경구성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교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예비보육교사에게 바람직한 모델링이 되기 위한 노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업무 외에 실습 지도교사라는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과 함께 영아반 실습지도의 경우 영아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때 마다 매번 예비보육교사에게 적절한 지도방법을 알려주며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더불어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개인적 배경 즉, 학교의 형태와 학과, 나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예비보육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및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먼저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과 함께 어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보육실습 관련 교육과정에서 실습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체계적인 이론과 문서 작성법을 비롯하여 모의

수업과 같은 체험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보육 실습 운영방법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는 일회성 보육실습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나 인턴십 기회가 사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요구하였고, 보육실습을 평가할 때에는 항목을 세분화한 척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 내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교사를 위한 보육실습 지도 매뉴얼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기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및 보상을 희망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자	6
II. 이론적 배경	9
1. 보육실습	9
2. 보육실습 지도교사	13
3. 선행연구	15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참여자	21
2. 연구절차	22
3. 자료분석	26
IV. 연구결과	28
1.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 과정에서 하는 역할	
1)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	28
2) 실습 조력자의 역할	33

3) 교수모델로서의 역할	38
4)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자로서의 역할	42
5) 실제 보육경험의 안내자 역할	48
6) 주변과의 소통을 돕는 역할	51
2.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53
1) 교실공개와 모델링 역할에서 느끼는 부담감	53
2) 실습 지도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55
3) 영유아 연령에 따른 어려움	57
4)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개인적 배경으로 인한 어려움	59
3.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	62
1) 예비보육교사의 기본적 자질 및 태도 관련 요구	62
2) 보육실습 관련 교육과정의 강화	65
3) 보육실습 기간의 확장 및 실습운영의 다양화	68
4)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위한 매뉴얼 및 재교육	72
5) 실습 지도교사 업무에 대한 보상	75
V. 논의 및 결론	77
1. 논의	77
2. 결론 및 제언	9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22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여 현재 여성의 취업률은 54.9 %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이주연, 2009)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 불평등한 근로 여건, 구인정보 부족, 가사 및 자녀양육 등은 여성의 취업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통계청(2015)에서 여성의 취업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30~39세 연령의 여성들은 취업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비율은 58.9%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결혼을 한 후에 직장생활 뿐 아니라 가정생활도 함께 병행해야 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더욱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자녀 출산을 미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주연, 2009). 즉, 육아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꺼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초혼연령의 상승과 자녀교육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질 좋은 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생

에 초기 양육환경은 생애 전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하진, 이옥, 백선희, 2015). 0-6세를 포함한 아동기의 성장 환경과 경험은 이후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이다(장미경, 2004).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처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공간이고,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이므로 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장미경, 2004).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41,084개소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1,451,215명으로 조사될 만큼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321,067명 중 보육교사는 229,548명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리함을 제공한다면 보육시설의 인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며 영유아가 보이는 다양한 정서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내용 및 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비품과 교재교구 및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역할과 더불어 영유아 보육활동의 평가를 하고 부모상담과 부모교육을 비롯한 현장학습계획 및 지도와 지역사회 연계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의 교육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전남련, 정명희, 2013).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아동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 서비스의 근본적 요인이 된다(유병예, 2003). 보육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보육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보육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질 높은 이론적 지식과 현장 실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윤지혜, 2015).

보육현장에서의 전문적 소양을 익히는 주요 과정인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아동에 대한 이해, 학급에서의 활동들, 보육의 실제에 대한 인식, 보육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사항들에 관심을 갖게 한다. 또한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에게 영유아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김재환, 2009) 특히 현직 보육교사의 교수법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그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이 보육교사에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육실습이 갖는 의미가 크다.

보육실습 과정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학급운영 전략,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면담 모습을 보이게 되며 예비보육교사는 실습 지도교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승선, 이춘자, 2013). 보육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습 지도교사는 수업내용과 방법을 예비보육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실제 수업의 범위와 시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예비보육교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윤지혜(2015)는 바람직하지 않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모습이 예비보육교사에게 그대로 수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1급 자격증을 가진 보육실습 지도교사 1인이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하도록 제시하였다(한국보육진흥원, 2013).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경험이 풍부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우수하여 예비보육교사의 영유아보육과 지도활동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수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태도와 자질 면에서도 예비보육교사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예비보육교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실습을 수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나귀옥, 김경희, 광정인, 2016). 그러므로 보육실습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모델이 되고 보육현장에서 실습의 실체를 직접적, 개별적으로 지도, 평가, 감독하는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김수향 외, 2016).

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면담을 실시한 이경선(2012)의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습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반성적 사고를 했고, 이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임승렬(2004)은 실습 지도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보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비보육교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병예(2013)의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와 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실습 과정을 전, 중, 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습 지도교사와의 면담이 일회성에 그쳐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심윤희(2016)는 원장과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적 이야기를 통해 공보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교육실습의 의미와 실습체계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원장 3명과 지도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였으나 보육실습기관을 국공립어

린이집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실습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연구대상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닌 유치원교사이거나 어린이집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더라도 어린이집의 유형과 연구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어린이집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의 실습지도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지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실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둘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지도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셋째,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8년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직장보육 위탁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할 당시에 주임교사로서 수차례 보육실습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가 실습 지도를 한 예비보육교사들은 전문대학 혹은 그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실습을 오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는 예비보육교사는 영아반에서 실습 일정이 진행될 동안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일상적인 보육에서 실습 지도교사의 특별한 지도 없이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익숙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교에서 이론수업을 마치고 온 20대 초반의 예비보육교사는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반응으로 유아반에서 실습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연구자는 보육실습에 참여하는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연령, 학과, 영유아의 양육경험 등의 개인적 배경이 다양하고 보육실습에 참여하는 예비보육교사의 열의, 관심, 태도 등에도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연구자는 예비보육교사가 낯선 어린이집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보육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부착하여 주었다. 이는 예비보육교사가 영유아들의 이름을 숙지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다. 또한 영유아들이 지닌 기질이나 발달 특성 등을 작성하여 예비보육교사에게 미리 전해 주는 등의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연구자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과 효과적인 활동 진행방법으로 쓰이는 손유희 중에서 영유아들이 재미있어 하는 노래나 율동을 소개해 주고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예

비보육교사에게 연령별 교재교구의 특징이나 적절한 교재교구 사용법 등을 알려주었다. 또한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 일과 중에 궁금한 것들을 메모하였다가 낮잠시간이나 하루일과가 끝난 후 하루 평가를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자와 이야기 나누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전문적인 지원자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예비보육교사와 생활하면서 소통하고 공유하며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놀이를 하며 즐겁게 실습 일정을 잘 소화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연구자에게는 보람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 또한 예비보육교사의 모습을 통해 연구자는 보육교사로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담임교사로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는 별개로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이 병행되다보니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교실에서 해야 하는 환경 정리 및 수업 준비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준비 등으로 남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러한 부분은 실습 지도교사로서 어려운 점이였다. 또한 연구자가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하고 평가한 내용이 예비보육교사로부터 반영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영유아의 상호작용에 큰 흥미가 없고 본인의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을 볼 때 실습 지도교사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당혹감을 느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습 지도교사로서 예비보육교사에게 적합한 면을 보여주고 지도해 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예비보육교사를 충분히 고려해 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자책하게 되었다.

이에 실습 지도교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실습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를 찾아가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교사회의를 통해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러한 고민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지도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실습 지도에 대한 전문 서적과 교육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보육실습을 지도할 때의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보육실습을 위한 보육실습 지도 교사들의 요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습 지도교사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 보육실습은 어떠한지 그들을 이해하고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과 방안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보육실습

1) 보육실습의 의미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 등의 환경 변화와 아동 중심적 보육 환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대사회에서는 보육에 대한 개인 및 국가적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여성 인력의 필요성 및 기혼 여성의 취업요구 증대와 함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력·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김경희 외, 2016).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질적 보육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보육·교육제도와 교수방법,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보육·교육이 중요할수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 등 역할 수행 범위도 넓어졌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은 필수 요건이 되었다(오영희, 임영옥, 서지원, 서영선, 2012).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예비보육교사들의 현장실습 기회와 기간을 늘리고 정규 실습 외에 단기간에 걸쳐서 실습 어린이집의 환경, 교직원, 하루일과 등의 보육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실습과 정규 실습 이후에 실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급 운영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사후실습으로 나누어 계획하여 실시되고 있다(문혁준 외, 2012).

보육실습의 의미는 크게 예비보육교사의 관점에서 보는 의미와 실습기관

및 실습 지도교사의 관점에서 보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비보육 교사의 측면에서 바라 본 보육실습은 보육교사로서 실제적인 교수기술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 실내외 환경의 조성 및 관리, 행정적 업무 등 전반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하여 장차 보육교사로 취업 하였을 때, 현장의 실제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과정이다(강미희, 2013). 또한 보육실습은 유아교육기관 또는 어린이집 등의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희망하는 관련 전공 학생이 지도교수와 실습하는 영유아교육기관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예비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경험해 보는 교육활동이다(오영희 외, 2012). 더불어 문혁준, 백혜리, 김정희, 김혜연, 김민희(2012)는 보육실습을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의 하나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및 품성 등을 형성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사전 준비과정으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교사 및 영유아를 관찰하고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가르치는 등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보육진흥원(2013)에서는 보육실습기관에서 바라본 보육실습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보육실습기관은 예비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실제적 도움을 주는 배움의 장소로서 양성교육기관과 밀접한 협력 체제를 이루어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 지도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본인의 보육계획 및 수행,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놀이 참여, 환경 구성 및 교재교구 활용 등을 점검해 보고, 예비보육교사의 실습 수행과정을 통해 자기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셋째, 실습 지도교사는 물론 실습 기관 내의 모든 교직원들은 바람직한 보육활동에 대한 고민과 영유아의 안전, 영양 및 위생, 건강 등 여러 측면의 점검 과정을 통해 보육과정과 기관의 전반적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나 교수학습방법 등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관찰해 보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가 실습 지도교사의 지도를 통해 보육교사의 역할을 경험해 보며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된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에게는 실습 지도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의 모습을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자기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방법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보육실습은 실습 지도교사에게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2) 보육실습의 목적 및 중요성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현장에서의 실천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보육실습의 목적은 예비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풍부한 보육 경험을 갖는 것이고, 영유아와 실제적 상호작용을 하는 풍부한 보육 경험과 함께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질을 형성하는 것이다(나귀옥 외, 2016). 보육실습생이 보육실습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보육실습의 목표는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보육의 철학과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고, 실제 경험을 토대로 영유아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구체적인 보육내용, 놀이 중심의 상호작용,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효과적인 교수법 등을 관찰하고 직접 수행해 보는 것이다(한국보육진흥원, 2013). 더불어 실습은 능동적인 자기활동에 의해서 전개되므로 실습을 통해 예비보육교사 스스로가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지식, 기술, 자질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자기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보육교사로서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오영희

외, 2012).

보육실습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하는 실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 보육실습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지혜(2015)의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는 실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신으로 유아에게 필요한 생활교육을 지도해 나가면서 유아와의 관계에서 책임감과 지도교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고 수업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처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계획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송주승(2015)은 예비보육교사의 교육신념과 교직에 대한 적합도가 보육실습 전보다 보육실습을 마친 후에 높아졌고 전공에 대한 갈등은 현장실습 전보다 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에게 영유아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 수용적이고 비판견적 태도 및 문제를 가진 영유아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개인차를 인정하는 태도 및 민주적 학급 운영 태도, 교수 준비도 및 신중한 교수 태도, 교수방법의 정교화와 능숙화 및 영유아의 학습 동기 유발 능력, 영유아 중심의 교수방법 선호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정확한 평가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문혁준 외, 2012) 예비보육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전후 인식을 비교한 최진숙(2005)의 연구결과, 교사의 역할, 지원체제, 지도내용, 실습평가, 실습 사전안내 측면에서 예비교사들이 실습 전에 가졌던 긍정적인 인식이 실습 후에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임현숙(2011)의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은 이론과 다른 실제현장에서 딜레마 상황을 맞이하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을 통해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인식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적대감

을 가지게 되거나, 유아의 생각을 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 하면서(오영희 외, 2012) 보육실습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 연구들도 있다. 이렇듯 보육실습의 부정적인 측면은 예비보육교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보육실습의 경험을 두고 실제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보육실습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응용 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하며(김수향 외, 2016), 보육실습의 경험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교사 양성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지식,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개인의 특성을 더욱 견고시킬 수 있다(이유미, 1996). 또한 실습 기간 중에 형성된 교직에 대한 신념은 초임교사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장경력과 함께 교사 자신의 교직관으로 형성된다(유홍옥, 유영의, 2004).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을 통해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목적과 내용을 비롯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보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결정과 해결방안 등을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어린이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형성되어진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질과 적성이 보육교사에 적합한지 점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므로 보육실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2. 보육실습 지도교사

1)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과 자질

보육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예비보육교사의 수업 진행, 아동지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도를 한다(유병예, 2013).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다양한 수업사례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예비보육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을 강화하고, 예비보육교사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도록 안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언하는 즉 예비보육교사의 모든 일과를 지도, 관찰,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조운주, 2001).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새로운 학급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교수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돕는 실습안내자, 아동과 학습과정에 대해 알게 하고 점차 보육실습에 참여하게 하는 교수행동으로서의 도입자, 실제 교수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용을 돕는 행동지도자, 예비보육교사의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평가를 해 주는 평가자 등의 역할을 한다(김수향 외, 2016).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을 실습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실습 시작 전에는 예비보육교사가 낯선 실습기관에서 불안을 갖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이하고 실습초기에는 실습의 전체과정과 기관의 운영방침, 기관의 규칙, 교직원구성, 시설 및 설비, 영유아의 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실습중기에는 예비보육교사에게 교수활동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며, 보육실습 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 실습후기에는 예비보육교사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진로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나귀옥 외, 2016).

보육교사가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열의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지, 도움을 줄 때 권위적이지 않고 예비보육교사의 의견수용, 융통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예비보육교사를 보호해 주는 입장을 취하는 인성적 자질과 교수전략 및 이론을 비롯하여 전문적 연구에서 발견되는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의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다(박은혜

외, 2013).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할 일은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기간 동안 어떤 경험을 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지도할지를 계획한다. 둘째, 보육교사로서 갖춰야 할 교수 기술이나 능력, 태도, 대인관계의 기술에 대해 시범을 보인다. 셋째, 예비보육교사가 작성한 보육실습교육계획안과 학습지도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며 필요한 제안을 해준다. 넷째, 예비보육교사가 일과를 진행할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 영유아 지도에 관한 보조를 한다. 다섯째, 보육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예비보육교사들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한다. 여섯째, 어린이집 내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책무에 관한 지도와 조언을 해 준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보육교사로서의 생활 철학에 도움이 되는 지도를 한다 (전남련, 정명희, 2013).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와 매일 어린이집 일과를 함께 하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과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교수 학습을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비보육교사가 보육교사로서의 태도와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선행연구

보육실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실습 지도교사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과 경험 그리고 실습 지도를 위한 요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이론에서 배웠던 과목을 실제 수업에서 연계 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구체적인 모델링이 되어, 예비보육교사에게 수업계획안 지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도를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주어서 교수 학습 실제 영역의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심은희, 2011). 또한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정서적 지원 역할과 전문적 지원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였는데 실습 지도교사로서 본인의 역할수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실습생의 교수향상을 위한 협의(계획 및 평가시간)를 통한 피드백 제공이었다(이호영, 2006).

한편 유아교육 실습에서 지도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실습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수기술이나 능력, 태도, 대인관계의 기술에 대한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교육 지도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며 필요한 제안을 해주고 넷째, 실습이 진행 되는 동안 예비교사들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배소연, 윤기영, 조부경, 1994). 유아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에는 연구자의 역할, 성장기회제공의 역할, 실습생평가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실습안내의 역할, 교수활동지도의 역할, 실무지도의 역할이 포함되며, 실습의 영역을 크게 수업실습과 실무실습으로 나누어 볼 때, 교수활동지도 역할과 같은 수업실습지도역할에 비하여 실무(유치원 시설·설비의 관리 및 각종 서류의 작성,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지도 역할의 실제 수행은 대체로 낮다(신현주, 199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에 따른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실습과 교육실습 지도교사 모두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오지연, 2005).

실습 지도교사들이 겪는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의 역할 모델로서 스스로를 재점검하고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실습 지도교사 자신에 대해 지도자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습 지도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유병예, 2013). 또한 매일 협의회를 통하여 예비보육교사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예비보육교사가 작성한 교육계획안과 지도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제안과 수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를 어디까지 지도해야 할지, 예비보육교사를 제대로 지도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실습 지도교사로서 어떻게 평가 받을지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임승렬, 2004).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유아교육 실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처음 실습 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업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고, 3~7년 사이의 경력교사들은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 모델이 되어 수업에 있어서도 정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수업준비에 대한 걱정을 한다(이진숙, 2003).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지도방식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보육실습지도방식에 준하며 체계적인 보육실습지도에 대한 과정이 없이 과거 자신이 받은 보육실습지도 방식 그대로 예비보육교사에게 보육실습 지도를 하는 경우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 지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이명순, 2000).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자세, 지식, 기술, 대인관계 등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며 실습 지도를 통해 예비보육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지도교사 스스로 느끼게 되는 무력감과 지도를 잘하는지와 예비보육교사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낀다(조운주, 2001). 이처럼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 지도과정에서 어려움과 불안, 압박감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지도교육과 환경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승경(2015)의 연구에서는 보육실습 지도 관련교육을 받은 현직보육교사가 보육실습지도 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현직교사보다 전체적으로 역할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실습지도 관련교육을 통하여 현직 보육교사들은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보육실습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보육실습 지도능력을 현직 보육교사가 갖추게 하는 것은 보육실습 지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육실습을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실습지도 관련교육은 현직 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실습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실습지도능력을 갖추게 하여 실습지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육실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하다(우지선,2009). 보육실습 지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라승선, 이춘자, 2013)에서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지도능력 습득과 실습 지도교사로서 자신감을 갖기 위하여 실습 지도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보육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규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실습의 현황을 분석한 김의향, 서문희, 성미영, 민미희(2010)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1인이 10명 이상의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이렇듯 1인의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다수의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하게 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게 위해서는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1회에 지도할 수 있는 보육실습생의 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을 수행하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송주승(2015)은 보육실습을 통해서 예비보육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직접 접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쉬어지며 실습 지도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보육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기술을 몸에 익히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재환(2009)의 연구결과, 실습 지도교사가 가진 교수방식을 예비보육교사가 유사하게 따라가게 되어 대체로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높게 평가하는 항목과 내용을 예비보육교사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병예(2013)의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는 실습 지도교사의 교수방법과 같은 전문적 보육활동 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까지 모델링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비보육교사는 실습을 거치면서 교사와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임하게 되어 적응력을 높이고 역할인식을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주(1998)의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는 교수 기술 발달보다 개인적인 지지나 교사 역할 발달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실습 지도교사의 영향력은 예비보육교사가 현직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할 경우 그대로 재생산되어지므로 지도교사는 교육의 원칙과 전문성을 재고하는데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Copas(1984)는 실습 지도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여, 어떻게 가르치며, 유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를 관찰하고 모방하여, 실습 기간 동안 교생들은 방북하고 실천하며, 실습이 끝날 무렵에는 실습지도 교사와 유사한 교수방법·태도·전문가적인 신념까지 갖게 된다고 하였고 장봉춘(2008)이 교육실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적 구성요소로 실습 지도교사를 이야기 하듯 보육실습에 있어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습 지도교사의 역량은 보육실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보육실습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연구대상이 실습 지도교사에 비해 예비보육교사를 대상(김정신, 송경애, 2010; 박지완, 2011; 송주승, 2015; 임승렬, 1995; 윤지혜, 2016)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예비보육교사와 실습 지도교사간의 인식차이 또는 비교연구(김재환, 2009; 라은미, 2011; 이승경, 2015; 우지선, 2009; 유병예, 2013; 장봉춘, 2008)가 이루어졌다. 실습 지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습 지도교사(라승선, 이춘자, 2013; 이진숙, 2003; 임승렬, 1995; 조운주, 2011; 최명아, 2013)의 역할 인식, 수행, 스트레스에 대하여 일회성 설문지형식의 단면을 연구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역시도 유치원 교육실습과 관련한 연구들로 대부분 이루어졌다. 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으나 심윤희(2016)는 면담과 참여 관찰을 하여 보육실습의 의미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이호영(2006)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개념도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경선(2012)의 연구가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 되었지만 그 대상이 유치원 교육실습과정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예비보육교사에 치중되어 있거나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의 일부 집단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는 실제 보육실습은 어떠한지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자신의 역할 그리고 바람직한 보육실습을 위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경험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해서 실습 지도교사들이 어떠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참여자, 연구절차, 문서수집,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특별한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자들을 직접 선택하는 목적표집(김영철, 2016) 방법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실습지도 교사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고려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형태가 직장,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실습의 경로와 보육실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배경으로 출신 학교와 학과, 연령 등이 다양한 예비보육교사를 실습지도한 경험이 2회 이상 있는 현직 보육교사로 선정하였다. 셋째, 3년~12년의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가 고르게 연구에 참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현재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학급의 연령이 0세~ 만 5세까지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기관 형태	면담 대상	연령	성별	학력 (전공)	경력	담당학급 연령	실습지도 경험 횟수
직장	A교사	만31	여	대학원졸 (아동복지학과)	7년	만2세	3번
	B교사	만28	여	대학원졸 (유아교육학과)	5년	만4세	2번
	C교사	만26	여	4년제졸 (아동복지학과)	3년	만5세	2번
국공립	D교사	만27	여	전문대졸 (영유아보육학과)	7년	만3세	4번
	E교사	만27	여	전문대졸 (보육학과)	5년	만4세	5번
	F교사	만41	여	대학원졸 (유아교육학과)	12년	만1세	4번
민간	G교사	만31	여	전문대졸 (보육학과)	11년	만3세	6번
	H교사	만34	여	전문대졸 (사회복지학과)	11년	만2세	5번
가정	I교사	만28	여	대학원재 (아동학과)	5년	만0세	3번
	J교사	만50	여	4년제졸 (아동복지학과)	6년	만0세	4번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0월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개월간 보육실습의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실습에 대한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습일지, 연구 참여자 저널 등의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근무가 끝난 평일 또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주말에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교사 1인당 40분~1시간 정도로 3회씩 총 30회의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카페와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실을 비롯하여 근무하는 어린이집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처음 만나는 1차 면담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참여자들과의 라포형성(rapport)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혹은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특색이나 현재 근무상황, 연구 참여를 허락한 이유나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 등에 대해 연구자가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준비된 질문을 주로 하는 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자격취득의 경로 또는 실습 지도교사의 전공 등의 내용들은 직접적인 대화로 질문하기보다는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연구 참여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태도로 임하며 연구 참여자의 표정, 말투 등을 기록하였다.

2차면담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보육실습 지도에 관한 경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보육실습 지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혹은 실습 지도교사로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보육실습의 시기와 시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보육실습 지도교사로서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비보육교사가 실습을 오기 전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육실습 지도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등과 같이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한 지도교사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과 개방적인 질문을 혼합하여 실습

지도교사로의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면담을 하였다.

이후 3차면담에서는 보육실습 지도에 관한 경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듣기 위하여 예비보육교사의 출신학교와 학과, 연령 등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가? 예비보육교사가 보이는 성향과 성격이 보육실습 지도교사와 맞지 않을 때 대처방법 및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노하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효과적인 보육실습을 위해 예비보육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보육실습지도의 경험을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 역할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보육실습 지도교사로서 보육실습이 이루어지는 전, 중, 후 시기에 따른 역할 수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을 모두 전사하고 연구자는 면담 중 상황을 간단하게 기록하여 첨가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수집 한 자료의 총 분량은 A4용지로 196페이지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할 때에 미처 다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에는 문자 혹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2) 보육실습일지 수집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일일 보육일지와 수업계획안, 그리고 예비보육교사에 대한 평가기록 등을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연구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보육실습을 진행하는 보육교사에게는 보육실습이 진행되는 당시의 보육일지를 제공받았으며, 이미 보육실습이 이루어진 보육교사에게는 과거에 보육실습 지도를 했을 당시의 보육일지 일부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면담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보육실습이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의 상황과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실습 지도교사 면담 시 구체적인 질문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실습 지도교사가 예비보육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구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연구 참여자 저널쓰기

저널쓰기(journal writing)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사고, 주변인, 관심, 환경들을 연구자가 이해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실습 지도교사로서 자신의 역할과 지도방법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강미희, 2013; 정남미, 2015). 연구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보육실습이 진행되는 보육교사에게는 예비보육교사와 함께하는 하루일과 중에 인상적인 상황, 에피소드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의 생각, 견해, 판단 등에 대해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자유롭게 글로 기록해 보도록 하였다.

이미 보육실습이 이루어진 보육교사에게는 과거에 보육실습을 지도했을 당시 기억에 남는 예비보육교사와의 일화 또는 사례, 혹은 지난 보육실습에 대한 현재의 생각, 아쉬움 등 반성적 사고의 관점과 더불어 앞으로 있게 될 보육실습에 대한 생각과 각오에 대해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자유롭게 글로 기록해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갖고 있는 교사관, 유아관, 예비보육교사에 대한 느낌, 태도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보다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되며(정남미 2015),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한 녹음자료와 전사본, 현장 기록노트, 보육실습일지, 연구 참여자 저널이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녹음 자료와 현장기록 노트에 관찰한 내용들을 날짜별로 전사하고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를 전사한 후 읽어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이나 차이점 혹은 연구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적 코딩을 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 범주화 과정에서는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어려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긍정적 경험’,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이 가진 개인적 배경에 따른 차이점’,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육실습 지도 교사들의 요구’ 라는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그러나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습 지도교사가 경험한 긍정적 부분과 어려움, 그리고 예비보육교사 개인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경험에 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서로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어 실습 지도교사의 어려움이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범주는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하는 역할’ 과 ‘보육실습 지도의 어려움’,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 의 3개 상위범주와 15개 하위범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분석 및 해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적절성을 확인하고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후 전사하여 분석 해 놓은 자료를 다음번 면담 시에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지난 면담에서 이루어진 내용과 해석이 맞는지 검증 받는 ‘연구 참여자 검증(member checking)’ 을 진행하였다.

또한 ‘동료 연구자에 의한 지적 및 조언’ 으로 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동료 1인에게 자료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점검 받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견해를 반영하여 신뢰성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기관에서 보육실습 지도경험이 있는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습지도 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하는 역할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 실습 조력자로서의 역할, 교수모델로서의 역할,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자로서의 역할, 실제 보육교사 경험의 소통 역할, 주변과의 소통을 돕는 통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

보육실습지도 교사들은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먼저 예비보육교사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이야기 해 주고, 예비보육교사의 학교생활, 개인적 취미 등에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한다고 하였다. 실습 지도교사가 먼저 소통을 시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예비보육교사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냥 처음에는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선생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요새 유행하는 옷이 뭐예요?” 이와 같은 질문을요. 좀..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공감할 수 있는 만한 것을 찾고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럼 훨씬 이야기하기가 수월 해 지더라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에서 했던 행사나 소풍 때 있었던 일 같은 것들도 이야기 해줘요. 저 나름으로는 마음이 편하게 대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D교사. 2016. 11. 6.)

쉬는 시간이 생길 때에는 예비보육교사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많이 물어 봤어요. “선생님 수업 과정에서 무슨 과목들을 배워요?”, “뭐가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요. 편하게 해 주려고 학교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비보육교사에게)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실습이 힘들죠?”, “도와 줄 것은 없나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사실 그분의 입장에서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실습이라는 것이요. 심적으로라도 편하게 도움을 주고 싶은거죠.

(H교사. 2016. 10. 10.)

처음에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죠. 요즘 얘기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 봐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친해지고 나면 예비보육교사가 먼저 “선생님 어제 드라마 그거 보셨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먼저 묻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서로 지내기도 편하고요.

(G교사. 2016. 11. 10.)

위와 같이 보육실습지도 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며 헤어스타일, 수업 과목, 즐겨보는 드라마 등의 질문을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보육실습이 실습 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 모두에게 상호우호적인 경험이 되기 위함이며 실습 지도교사가 먼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실습 기간 동안 함께 지낼 동료로 예비보육교사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담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와 실습 지도교사 간에 개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더욱 긍정적인 실습 지도가 이

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비보육교사에게 피드백은 꼭 해 드리려고 노력하죠. 하루에 대한 평가는 꼭 같이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 보죠. 옛날이긴 하지만 저도 실습 받으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코멘트를 늘 상황마다 해 드리지는 못해도 꼭 물어보고 예비보육교사가 가지는 생각을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도 처음은 낯설잖아요. 그날 (예비보육교사가)보였던 행동이나 모습 중에 칭찬해줄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 해 줘요.

(A교사. 2017. 3. 21.)

(예비보육교사를) 이해 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계속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스스럼없이 무조건 이야기 해 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안쓰럽죠. 생전 해 보지 않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이랬을텐데 그런 것을 실전에 적용함과 동시에 기록으로도 남겨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평가를 써야하고.. 활동도 짜야 하고 애들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안타깝죠. 사실 제가 그랬었어요. 실습을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예비보육교사 그 분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E교사. 2016. 11. 10.)

예비보육교사에게 칭찬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러면 “와~ 선생님 체력 정말 좋다. 선생님이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네” 아이들이 상호작용 할 때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잘 하시는 것 보면 “상호작용이 막상 하기는 힘든 것인데 선생님은 진짜 아이들하고 즐겁게 상호작용 잘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고요. 낯선데 와서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이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실습을 할 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때때마다 칭찬을 해 줬어요.

(H교사. 2016. 10. 10.)

면담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들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며 예비보육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실습

지도교사 자신 역시 과거에 예비보육교사로 실습하는 동안 느꼈던 낯설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었다. 실습 지도교사들은 하루의 평가시간을 통해 예비보육교사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보육교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예비보육교사를 배려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 이 같은 실습 지도교사의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은 예비보육교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실습 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 간에 신뢰감이 형성되었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로 인해 작품 만들기 등의 보육활동 준비과정이 수월해 지고 보육교사 혼자서 게임이나 신체활동을 진행할 때보다 다양한 활동 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과 영유아들과의 놀이에서 예비보육교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즉, 실습 지도교사는 수업준비 혹은 활동 진행에서 예비보육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예비보육교사를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가위질을 해야 한다던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작품 만들기를 (아이들에게)제공 해 주고 싶은데 어린이집 행사도 많고 일과 중에 실외활동에서 다른 놀이도 진행해야 되고 바쁜 날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때 예비보육교사한테 “가위 질 좀 도와주세요 ”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교실 정리나 청소를 도와주실 때도 있고 수업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월 해 지죠.

(B교사. 2017. 3. 21.)

저 혼자 있을 때는 게임수업하기 힘들거든요. 준비를 해 놓고 아이들이랑 게임 방법을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양쪽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리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예비보육교사가 계시면 소그룹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아이들도 교사들이 편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좋아해요. 선생님이 두 분이 되고 하니까 팀별로 진행하고 또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게임의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신체놀이도 확실히 다양하게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C교사. 2017. 3. 21.)

종이접기나 영역별로 나눠서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같이해요 선생님” 이러면 “선생님 저 친구랑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가서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죠. 영역별로 아이들에게 모두 들어가서 제가 놀아주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예비보육교사가) 같이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좋죠.

(A교사. 2017. 3. 21.)

이 같은 경험은 주로 평소 혼자서 다수의 유아를 보육하는 유아반 보육교사에게서 나타났다. 이유는 동료교사와 함께 보육하는 영아반교사나 누리보조교사가 상시 근무하는 유아반 교사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육교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많은 역할을 보육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예비보육교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아반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존재로 인해 평소보다 영아들에게 개별적인 보육활동이 가능해지고 교실을 비울 수 없어 늘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던 화장실 사용을 비롯해 청소나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걸기를 어려워하는 아이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자꾸 산책을 나가야 하는데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나마 선생님이(예비보육교사가) 계실 동안에 자리매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거의 매일 산으로 운동장으로 공원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단단해 지고 잘 걷고 이제는 넘어져도 별떡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어요. 예비보육교사가 계셨으니까 그랬죠. 고마워요.

(J교사. 2016. 10. 24.)

제가 화장실가거나 이럴 때 원래는 옆 반 선생님한테 “잠깐 교실 좀 봐

주세요” 이라고 갔었고 (교실로)돌아오기 바쁘게 움직였죠. 옆 반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혼자 얼른 다녀오자니 정말 불안해서 편하게 화장실을 갈수도 없고요. 근데 (예비보육교사) 있으니까 금방 다녀오면서도 마음이 편하죠.

(A교사. 2017. 3. 21.)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장난감 닦아야 하고 세척해야 하고 소독해야 하고 그런 것들 진짜 할 일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이 덜어지고 같이 하니 까 쫘 덜 힘들고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뒤에서 같이 아이들 봐주는 것도 그렇고 식사시간이나 낮잠시간이나 칫솔 정리 같은 것 챙겨야 할 것들 알아서 딱 같이 해주니까 제가 훨씬 수월해 지고 좋죠.

(G교사. 2016. 10. 10.)

뿐만 아니라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이 끝난 후에도 예비보육교사와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보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료적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습 끝나고 아직도 연락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본인들도 함께 자랑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친해지고 해서 연락 하는 건데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 “선생님 저 어디 어린이집에 면접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땐 뭐라고 대답 하는게 좋아요?”하고 연락이 오고 그럴 때 뿌듯하고 (예비보육교사들이) 예쁘죠.

(G교사. 2016. 11. 10.)

2) 실습 조력자의 역할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실습 조력자로서 먼저 예비보육교사가 지내게 될 교실의 하루일과와 어린이집의 일정과 행사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면담에 참여한 실습지도 교사들 모두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시는 날 거창하게 무슨 OT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나름의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지도를 하게 되니까요. 저랑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과 우리 반에 대한 설명, 연령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비보육교사도 생각해 주시고 감안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낮잠시간을 이용해서요. 궁금한 것 질문하시면 대답도 해 드리고. 사실 처음 오면 잘 모르잖아요.

(J교사. 2016. 10. 24.)

첫날 실습을 끝내고 나서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하고 물으면서 앞으로 우리 반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일정표)보여주죠. 2주차에 부분수업이 몇 번 진행 되고 교구도 만들어서 시연도 진행 될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전체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말하고요. 이렇게 주마다 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브리핑처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E교사. 2016. 11. 10.)

오리엔테이션은 보육실습이 이루어지기 전, 보육실습 당일 아침, 혹은 하루일과를 마친 이후 등으로 어린이집마다 그 시기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의 어린이집에는 보육실습과 관련하여 예비보육교사에게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들이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에는 실습의 목표와 주별로 이행해야 하는 보육실습의 내용과 일정, 보육실습이 진행 되는 연령의 하루일과와 연령별 특징, 학부모 응대방법, 근무상의 유의점으로 예비보육교사들의 복장, 근무시간 등에 대한 당부 및 지침사항 등이었다.

저희는 저희 어린이집 OT자료가 따로 있어요. 어린이집마다 프로그램이나 돌아가는 일과형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큰 틀이 모두 다 다르진 않고 틀에 박혀있기는 하지만 특별활동 시간 이라든지 진행하는 요일이라

든지요.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루 일과랑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말해주죠. 그리고 복장, 근무시간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예비보육교사가 배운 것과 다르면 안 되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지켜야할 것들을 말해주죠.

(G교사. 2016. 11. 10.)

우선은 일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일과가 어떤 활동들로 이루어지는지, 학부모를 만났을 때 인사 혹은 대응방법, 아이들 하고의 대화방법처럼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 해주고 지금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려고 해요. 또 0세반 같은 경우에는 위생, 청결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실습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된다는 것, 그리고 영아 돌연사 주의 같은 것들요. 영아반은 특히 그런 부분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I교사. 2016. 11. 14.)

실습 지도교사들은 어린이집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실습일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지내게 될 영유아 연령의 특성 및 하루일과 흐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일과에 잘 적응 하고 보육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실습 조력자로서 어린이집 교실 및 복도 화장실, 자료실, 교재교구 실, 놀이시설 등 다양한 물적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실습 일정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예비보육교사에게는 실습일정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잔일을 예비보육교사의 몫으로 넘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에 있는 것 들을 다 오픈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재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실에 있는 걸 소개시켜주고 최소한 아껴쓰게 이야기는 하죠. 코팅기나 이런 것 잘 다루게끔 안전하게 수칙만 알

려주고 좀 편안하게 하죠. 저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설거지를 시킨다던가 물건을 사오게 하지 않아요. 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어도 과하게 야단치지 않아요. 사실 (예비보육교사 입장에서는)떨리고 새로운 환경인데 일주일동안 관찰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다 파악하고 알지는 못하거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해 줘요.

(F교사. 2017. 2. 12.)

어린이집에 교실 말고도 다양한 곳이 있잖아요. 교재 교구실이나 놀이터 그런 곳을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고 안내해줘요. 또 all day나 부분수업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같이 도와주거나 계속 개입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하면 횡수를 거의 1/3 로 줄인다거나 교구 같은 만드는 것도 4개중에 2개로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그렇게 해 드렸던 것 같아요.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배려 해 주는 거죠.

(E교사. 2016. 11. 10.)

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근무 시간 외에 초과 되는 업무가 생기지 않고, 예비보육교사의 퇴근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실습 지도교사가 평소 보육교사의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 충실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나 서류 업무 등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어려움을 예비보육교사에게까지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퇴근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고 가세요. 힘들텐데 집에 가서 실습일지나 이런 것은 쉬면서 하셔도 되니까 이것(정리정돈)까지만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비보육교사가 느끼기에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라고 답답하지 않게 말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육교사가 잔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많은 일을 늘 이렇게 해야 하는 (직업인)건가?’ 그런 생각이나 압박감이 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어린이집 일이 진짜 많잖아요. 오늘(예비보육교사가) 할 것은 여기까지라고 제가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고 행동 하더라고요.

(D교사. 2016. 11. 6.)

이와 함께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실습기간동안 실습과제의 일정을 마치지 못하여 실습 이후까지 과제 제출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제출시간을 주고 일정안내를 하고 있었다.

저는 교구 만들기를 할 때 시간을 충분히 미리 주는 스타일이예요. 그래야지 제 시간에 끝내 오시더라고요.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계속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습시간 안에 끝내야 하니까 못 끝내시면 사후과제를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잖아요. 사후과제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비보육교사들도 어린이집에 다시 오기도 힘들고 또 집이 먼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미리 줘요. 한번은 교구를 만들어오셨는데 까슬이랑 보슬이를 반대로 붙여 오신 거예요. 아이들이 만지는 면이 보슬이가 되어야 하는데 까슬이로 다 붙여 오신거죠. 제가 예비보육교사께 만져 보시도록하면서 어떤 느낌이나고 물으니 당연히 까칠하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구 만들 때는 아이들이 만지는 부분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 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시 보완 해 오시는걸 보고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비보육교사들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 했어요.

(C교사. 2017. 3. 21.)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단번에 완성도 높은 교재교구 제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예비보육교사가 교재교구 제작에서 익숙하지 않은 재료로 인한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에는 예비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설명 해주는 실습 조력자의 역할도 하였다.

3) 교수모델로서의 역할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실습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현장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기술을 습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실습 지도교사는 모범적인 보육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비보육교사가 실습을 오기 전 자신의 교실을 살피며 수업준비와 교구 정비 등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는 시간을 가지는 교수 모델로서의 역할에 신경 쓰고 있었다.

우선은 반 분위기를 그 달의 주제로 맞춰서 더 명확하게 보이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과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교실환경을 살펴보죠. 처음 어린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교실 환경이라는 것을 (예비보육교사가)접하는 거니까요.

(D교사. 2016. 11. 6.)

예비보육교사가 온다고 하면 제 수업계획이 물론 주제에 맞게 짜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점검하죠. 교실 환경을 제일 첫 번째로 살펴봐요. 또.. 제가 언행을 할 때 다시 한 번 되돌리며 머릿속으로 한번 더 생각해요.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긍정적 언어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퇴근하면서 교실의 교구들을 재정비하고 그래요.

(B교사. 2017. 3. 21.)

수업 면에서 준비가 반듯하게 되어 있어야 예비보육교사가 그걸 보고 따라 하잖아요. 아이들도 교사의 거울이지만 예비보육교사도 저를 따라하게 되니까요. 상호작용부터 수업에 엄청 준비를 하죠. 자기점검하고 영역 별로 다 되어 있는지도 체크하고..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활동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할 것들을 미리 다 해놔요.

(C교사. 2017. 3. 21.)

이렇듯 실습 지도교사가 평소보다 더욱 수업준비에 노력을 기울이며 보육실 환경을 재정비하고 자기점검을 하는 이유는 처음 보육현장을 접하는 예

비보육교사들에게 보육교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무엇보다 실습 지도교사는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였고, 이 같은 역할을 예비보육교사에게 직접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교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도교사로서 내 역할은 보육교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보육교사가 느낄 수 있게 많이 노력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교사가 가지는 안전관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보호자의 역할도 보여야 하고, 교수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중재자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상황마다 필요한 보육교사의 역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서 일하는지(예비보육교사가)접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지도교사로서 모델링이 되어주고 예비보육교사 곁에서 조언 같은 것을 많이 해 주려고 해요.

(A교사. 2017. 3. 21.)

예비보육교사들이 오면 아무래도 평소에 아이들을 한번 안아줄 것을 두 번..세 번.. 스킨쉽이 많아진다거나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이랑 놀이하는 시간이나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진다던가 하는 것이 있죠. 아이들한테 잘 교사가 되어야하고 또 (제가) 모델링이 되어야 하니까요.

(H교사. 2016. 10. 10.)

저는 아이들이 정말 예뻐야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예비보육교사한테)보여줘야죠. 내가 모델링이 되어서 다른 부분들은 다 포기하고 넘어가더라도 보육교사 이 일을 하려면 아이들을 예뻐해야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실습하면서 내가 보여줘야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J교사. 2016. 10. 24.)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모의수업은 모

두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실제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들과 나누는 상호작용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실습 지도교사는 교수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평소보다 영유아들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언어와 존대어를 사용하려 노력하였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예비보육교사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랑 학교에서 성인 친구들 앞에 앉혀놓고 모의수업을 하면서 옆에서 교수님이 피드백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이런 질문도 할 걸?” 하면서 경험한 그런 수업은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보여 주는 거죠.

(B교사. 2017. 3. 21.)

저한테 일단 상호작용이랑 아이들 감정 읽는 방법을 (예비보육교사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하루를 생활하다보면 선생님들이 급하니까 “애들아 뛰지 마세요” 라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아이컨택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일 빨리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으로 많이 해 주려고 해요. 제가 몸으로도 보여주면서 예비보육교사에게 모델링이 되어주고자 했어요.

(C교사. 2017. 3. 21.)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존대어를 사용하면 서요. 그러니까 예비보육교사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다가 가도록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의 강점인거 같기도 하고요.

(A교사. 2017. 3. 21.)

이처럼 실습 지도교사가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모델링이 되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비보육교사가 영유아들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습득하여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 과정 중에 본인이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말투와 모습에 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보육교사가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습 지도교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저는 우리 반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보육교사가)처음 교실에 왔을 때 예비보육교사가 학교에서 배우고 온 보육교사의 말투는 그런 것이 아닐꺼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반말을 하니깐 어느 순간 (예비보육교사가)따라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존댓말을 아이들한테 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하고 말했더니 “아.. 선생님이 쓰셔서 저도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차!’ 했죠.

(G교사. 2016. 11. 14.)

제가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 중간 중간에 상호작용 하고 이럴 때에 예비보육교사가 그걸 보고 어느 순간에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H교사. 2016. 10. 10.)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보육교사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영유아들과의 보육활동 보다 서류작성과 같은 외적인 업무에 치중하였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이는 실습 지도교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긍정적 경험이 되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예비보육교사를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데 제가 놀아 줄 때 보다 아이들이 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놀아 줄 수 있는데..’ 싶더라고요. 서류나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본분을 잃고서 다른 곳에 치중했었구나 싶어지고요. ‘아이들 봐주는 게 먼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내가 이걸 왜 진작 못했지?’ 이런 반성이 들었죠.

(H교사. 2016. 10. 10.)

일주일이 지나며 아이들도 예비보육교사를 너무 좋아하고 신체 놀이나 다양한 놀이 활동에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예비보육교사가) 아이들과의 언어표현이나 반응에 더 신경 쓰고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자 즐거워하며 웃는 유아들을 보며 나 역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하고 반응해 주어야겠다고 반성하게 되었다.

(D교사. 보육일지 평가 중.)

4)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자로서의 역할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교재교구제작을 돕기 위하여 먼저 계획서에 영유아의 발달단계가 고려되었는지 살펴보고 수정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예비보육교사를 격려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달 연령에 맞는 교재교구의 종류와 놀이방법에 관한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론적 자료와 사진을 직접 찾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보육교사가 교구를 제작 할 때의 주의 점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는 등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역별로 언어, 수, 조작, 과학, 그러면 거기서 요하는 연령에 적합한 교구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업계획이나 교재교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달수준에 맞는지 보죠. 그리고 처음부터 잘할 순 없으니까 (예비보육교사가)수업 때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획서에 다 기록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요. 그러면 저는 그 연령에 맞는 계획안이나 교재 교구들의 자료를 같이 찾아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USB에 있는 계획안들 평소에 저장해 놓았던 자료 사진을 찾아서 (예비보육교사에게)보여줘요. 그러면서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죠. 교재교구는 아이들의 발달의 특징에 맞게 흥미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F교사. 2017. 2. 12.)

교재교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언어에 관한 교구를 만들어 오세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데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진이랑 이런 것들 제가 찾아서 예를 들어 언어교구면 “이 교구는 아이들이 말하고 듣고 쓸 수 있게 하는 교구인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위험요소가 적어요.” 하고 만들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구체적으로 재료나 크기 같은 것들까지 다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어요. 또 (교구)만들 때 글루건 사용할 때나 바느질 할 때 제가 하면서 편한 방법들을 알려줘요.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할 때에도 아이들 집중을 끌 수 있는 무언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수께끼를 제일 좋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죠.

(D교사. 2016. 11. 6.)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의 교구계획서 작성과 제작과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적절하게 개입하며 예비보육교사가 준비한 활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예비보육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막대 동화 읽기였는데 유아들의 반응 보다는 종이를 보며 동화를 읽기 바빠하여 집중력이 떨어진 유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동화를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실습 지도교사가)동화 내용에 대한 리액션을 보이며 반응 하고 아이들에게 동화 속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서 흥미를 보이자 움직이던 아이들 중 몇은 자리로 돌아와 (예비보육교사의)동화에 시선을 두었다.

(D교사. 보육일지 평가 중.)

반면에 아래 G교사는 활동 진행을 온전히 예비보육교사에게 일임하여 자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G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교구 계획안 작성 시 꼼꼼하게 살펴보며 중요한 부분은 직접 메모를 남겨 주거나 활동 진행시 도입부분에서 영유아들의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해 주

는 등의 전문가적 지식을 공유하고 조력하는 역할은 다하지만 예비보육교사의 활동 진행시에 자신의 중간 개입은 예비보육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저는 지도할 때 교재 교구 같은 것들 되게 피드백을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처음에 선생님이 계획안을 가져왔을 때 T/C를 다 써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수업에 넣어 해 주세요” 하고 말씀 드리죠. “안 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교구 만드는 것들도 도와 드릴게요” 라고도 말하고 가위질이라도 도와주려고 해요. 부족한 부분은 또 고쳐주고 피드백 해 주고요. 그런데 예비보육교사가 수업을 진행 할 때에는 제가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 수업에 개입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누가 제 수업에 관여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경험 해 봐야 알 것 같고 부딪쳐봐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본인 스스로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더 자세하게 써 주고 이야기 해 줘요.

(G교사. 2016. 11. 10.)

G교사의 이러한 생각은 활동 진행시에 영유아들의 흥미와 건강상태에 따라 활동의 방향이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비보육교사가 진행하는 활동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예비보육교사 스스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한편, C교사는 중국 교환학생인 예비보육교사가 한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준비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언어적 표현과 활동의 진행방법 등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고민하였고 실습 지도교사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얻은 방법을 예비보육교사에게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교환학생 예비보육교사에게는 수업진행을 시뮬레이션 해 보라고 했어요. 말투나 말이 능숙하지 않아서 자신 없어 하셨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제가 쫓 보고 같이 고민하고 채워야 아이들한테 수업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아반이다 보니 수업 진행이 미흡하면 (예비보육교사가)힘들어져요. 그래서 t/c도 더 자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오시라고 했어요. 후반에는 많이 고쳐지고 좋아지시더라고요. 또 수업 하시는 것을 녹음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권해 드렸어요. 저도 초임 때 녹음해서 들어보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도 해주고요. 다행히 예비보육교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시니까 저도 더 도움 드리려고 지도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안 해오실수도 있는 거고 “제가 선생님한테 왜 두 번 이상 수업을 보여줘야 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데... 참 열심히 하셨고 그런 모습이 좋아서 저도 도움 드리려고 같이 했었죠.

(C교사. 2017. 3. 21.)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하루일과 계획과 예비보육교사가 함께 생활하며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작성하는 보육일지,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관찰일지 등의 문서 작성을 지도하는 것도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하루일과를 계획할 때 실외 활동, 각 영역별 활동, 전이활동, 대-소그룹활동 등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각각의 활동들이 서로 연계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안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보육일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루일과 안에 꼭 해야 하는 놀이시간이나 바깥놀이, 낮잠시간, 영역별 놀이, 전이활동 이런 것들을 (예비보육교사가)다 숙지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조금 그럴긴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주면서 설명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보육일지를 보여 줄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수업만 중요한게 아니라 그 것을 어떻게 연결 시켜서 연계하는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전달 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E교사. 2016. 11. 10.)

일지 같은 경우 제가 작성한 것을 보여 드리기도 해요. 공유하면서 (예

비보육교사)이해를 빠를 게 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그리고 도입에서 주의 집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손유희 같은 것도 찾아보시라고 하고 요새 유행하는 새로운 것 같은 것은 알려 드리기도 해요. 또 조용한 활동이랑 활동적인 활동 차이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 할지도 나눠 볼 수 있도록 해요.

(B교사. 2017. 3. 21.)

하루일과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요. 어린이집의 기준에 맞게 안내를 해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청하시면 제 일지도 오픈시켜서 보여드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비보육교사도 배우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보여 주죠. 일지 평가부분에서는 특히나 (예비보육교사가)같이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의 평가랑 놀이에 참여 하고 진행 했을 때의 평가는 확연하게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알려줘요.

(A교사. 2017. 3. 21.)

이는 실제 보육교사가 진행한 활동의 계획안 작성, 평가 작성, 지도방법 등의 전문가적 지식을 예비보육교사에게 공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평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F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사항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탕이 될 때 일지작성이나 올바른 관찰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지 평가하고 예비보육교사가 보이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달리하면 더 좋겠다고 이야기 해 주죠. 계획을 할 때에도 영역별로 잘 구성이 되어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수업을 할텐데 예비보육교사가 이런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가 활동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을 느끼고 보여주기 위해서죠. 또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 중에서 조금 특별한 것이나 교사가 (아이들을)어떻게 지도를 했는지에 대해

서도 이야기 나뉘요. 그것도 하나의 공부잖아요. 발달을 알면 계획서를 작성 할 때 다른 문서를 참고 하더라도 ‘왜 이 연령에 이런 활동을 계획 했는가’ 유추하고 생각해보고 알 수 있죠. 지금 예비보육교사는 배우는 과정이지만 현장에 가서 ‘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 어떤 활동을 이렇게 계획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수업의 재료를 가져와도 못 하잖아요.

(F교사. 2017. 2. 12.)

실습 지도교사들은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 공유를 통해 예비보육교사가 일지작성 및 영유아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점차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 자신이 한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실습 지도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예비보육교사가 일지를 써왔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썼더라고요. ‘평가에 궁금증이 있었는데 교사(실습 지도교사)의 모습을 보고 해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온걸 보고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이 분은 좋은 부분을 잘 캐치해서 가져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보육교사)을 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좋은 동료교사가 생기겠구나’ 싶어 보람 느끼죠.

(E교사. 2016. 11. 10.)

그 (예비보육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주셔서 제가 조금 수월 했어요” 하고요. 이제는 실습이 끝나면 보육교사잖아요. 이쪽 계통에서 동료든 후배든 한명을 제가 사수가 돼서 키워 준거잖아요. 그 선생님(예비보육교사)도 제가 알려준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더 고민하고 행동 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 그래도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런 부분에 내가 실습 지도교사로서 잘 가르친 거구나 하고 뿌듯해 지죠.

(D교사. 2016. 12. 11.)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의 계획안과 횃

수, 진행 방식 등을 보며 평가하는 평가자의 역할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계획대로 잘 시행 되었는지를 두고 평가하는 반면, F교사와 같이 예비보육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활동을 중단하고 마무리를 한 행동을 두고 격려하고 칭찬을 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실습하면 예비보육교사가 수업을 몇 개 했는지, 오늘 이 수업을 다하느냐 못하냐. 여기에만 몰두 되어 있어요. 수업은 예비보육교사가 만나게 되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하다가 안 됐던 부분을 놓친 부분을 두고 예비보육교사한테 “선생님 오늘 안됐잖아요, 이 것 못 했잖아요” 하고 질타 안 해요. “오늘 잘한 것이 뭐냐면 애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멈췄어요. 참 잘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요. 준비 해 온 수업을 다 해야만 이 훌륭한 선생님이고 애들이 잘 해야지만 질 높은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의 아이들을 파악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거죠. 그런 점들을 좀 더 추구하고 강조하죠.

(F교사. 2017. 2. 12.)

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보육교사가 진행하는 활동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융통성이야 말로 보육교사로서 갖춰야 하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실제 보육경험의 안내자 역할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영유아, 학부모, 동료교사들과 구체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습이라고 생각하였다. 보육교사로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알림장은 영유아의 건강상태 또는 주의점, 하루일과 중에 영유아가 보인 모습의 사진을 공유하는데 쓰인다. 예비보육교사는 알림장의 쓰임과 작성방법을 실습 지도교사를 통해 간접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실습 지도교사는 자신이 보육교사로서 경험한 사례를 예비보육교사에게 공유하고 안내하여 주었다.

어머니들과 전화하고 알림장에 학부모들이 써오는 글들을 보고 (예비보육교사가) 한숨을 쉬면서 “선생님 이런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요?”하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서 또 뭔가를 배워 가겠죠. 반에 보면 있잖아요. 한 둘 남다른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은 어머니들도 남다른거거든요. 그럼 (예비보육교사에게) 이야기 해줘요. 어머니들의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들어주고 공감 해줘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커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해주죠.

(G교사. 2016. 11. 10.)

요즘에는 스마트 알림장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걸 써도 보통 선생님들도 잘못 쓰는 경우에는 엄마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기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사진을 찍을 때도 아이가 잘 보일 수 있는 사진 찍기의 요령이나 부모한테 가는 사진, 부모한테 사용하는 말투나 이야기 할 때의 방법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요령들을 이야기를 해 주죠.

(I교사. 2016. 11. 14.)

또한 영아반 실습 지도교사는 나이가 어리거나 양육의 경험이 없는 예비보육교사에게 기저귀 갈기방법, 수유방법 등을 설명해 주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아반 보육의 실체를 예비

보육교사들과 함께 경험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저는 영아반이니까 기저귀를 갈잖아요. 그러면 (예비보육교사에게) 옆에 와서 보라고 해요. 그런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 없는 내용인거니까요. 기저귀도 짹짹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양옆이 막혀서 팬티처럼 있는 것도 있고 그럴거든요. 물로도 한번 싹 닦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할 순 없으니까요. 영아반은 기저귀 갈고 아이들 양치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계끔 지도 했던 것 같아요.

(H교사. 2016. 10. 10.)

아이들을 재울 때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항상 안아서 재워야 하고 수유 할 때 항상 안아서 먹여 재워야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교육을 했어요.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개에 수건 같은 것을 받쳐 놓고 아이들한테 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두는 경우에는 아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잠들어도 지켜봐야하고 아이에게 따뜻한 육성으로 이야기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강조했어요. 아이가 깬 때도 항상 눈 맞춤 해 주고 정말 단순한 보육이죠. 교육이기보다는 보호의 차원에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방법,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봐야죠.

(I교사. 2016. 11. 14.)

위와 같이 보육실습을 통해 예비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수행의 어려움과 동시에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어린이집 현장의 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주고 보육교사로서의 경험을 안내 해줌으로써 실제적인 보육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다.

6) 주변과의 소통을 돕는 역할

본 연구의 참여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영유아들과의 생활 속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이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와 동료교사에게 예비보육교사의 노력과 역할이 잘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주변과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습 지도교사는 이러한 역할을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 수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세반이었는데 뒤에서 보니 아이들이 너무 부산스럽게 뛰어다니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할 때면 예비보육교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당황하시고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보육교사께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도와 줄 수가 있고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선생님이 좀 더 아이들에게 다가가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 예비보육교사가 직접 아이들과 소통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예비보육교사가 해 볼 수 있도록요. 사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하고 경험이 되면서 실제 담임으로 어린이집 반 배정 받으시고 생활하실 때 이런 상황을 미리 겪어봤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E교사. 2016. 11. 10.)

한 번은 예비보육교사가 아이들이랑 화장실을 같이 가도록 보냈는데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신발정리를 예비보육교사에게 하라고 시켰나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좀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길 듣고 아이들이랑 수업에서 요즘은 정리정돈송이나 이런 노래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아이들이랑 수업 시작 전에 같이 들으면서 “얘들아, 그런데 어떤 친구는 신발을 그냥 두고 가기도 하고 내가 그냥 벗어놓고 신발을 보고 ”선생님이 정리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 00반은 스스로 정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이야기 해주고 나니까 조금씩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나 모습이 줄어든다고 예비보육교사가 말씀 해 주더라고요.

(C교사. 2017. 3. 21.)

실습 마지막 주에는 실습지도 교사가 예비보육교사가 해 왔던 수업 교육계획안과 수업자료, 교구 만든 것을 전시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예비보육교사의 생활이나 수업하시는 것을 모두 볼 수가 없잖아요. 주로 원장님이나 저나 담임교사가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습을 마치면서 (예비보육교사에게)수고 했다고 박수도 쳐 주고 앞으로의 응원도 해주면서 그동안 어떤 수업을 했는지 보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한 달 동안의 실습 평가 회 형식으로 피드백을 함께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요.

(F교사. 2017. 2. 12.)

또한 아래의 D교사와 같이 남자 예비보육교사에 대하여 편견과 염려가 있는 학부모들에게 실습 지도교사는 남자 예비보육교사의 장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부모 인식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남자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던데..”하고 걱정 섞인 그런 시선으로 물어봐요. 요즘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걱정되시겠죠. 확실히 여자 친구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남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요즘 아이들이 많이 뛰어 노는 그런 신체적인 놀이가 부족한데 (남자 예비보육교사) 선생님께서 몸으로 같이 놀아 주시다 보니 아이들 에너지 발산도 되고 너무 너무 좋다. 아이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필 해 주죠. (그런 걱정들로)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다가 “이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세요”그렇게 늘 등하원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부터 학부모들도 “집에서 애들이 (남자 예비보육교사)선생님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남자) 예비보육교사한테도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하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 역할 인 것 같아요.

(D교사. 2016. 11. 6.)

이 같이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현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영유아와 학부모, 동료교사와 원장, 원감 등의 관리자 등의 다양한 인적환경과 예비보육교사

가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2.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교실공개와 모델링 역할에서 느끼는 부담감, 실습 지도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습 지도의 어려움,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개인적 배경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실공개와 모델링 역할에서 느끼는 부담감

면담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대부분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경우보다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 이 같은 이유는 실습 지도교사 자신이 유아교육전공자가 아닌 관련 학과 출신이기에 자신의 교수방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 교실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해야하는 예비보육교사가 실습 지도교사 자신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비보육교사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잘해서 누군가에게 100점의 점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니까 부담스럽죠. 그냥 나도 모르게 어쩔 때는 편하게 아이들한테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선생님(예비보육교사) 눈에는 또 어떻게 보여 질지 모르겠고 저도 사실 유아교육전공자가 아니라서.. 학과에 따른 그런 차이도 있겠죠. 외부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죠.

(J교사. 2016. 10. 24.)

솔직히 좀 자격지심인데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어린이집으로 실습오신 예비보육교사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수업을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예요. 누가 내 수업을 그냥 참관하는 거지만 왠지 저는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고는 있지만 '예비보육교사가 나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 배웠으면 어떨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요.

(H교사. 2016. 10. 10.)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는지,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놀아주는지를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실습 지도를 하면서 거부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이유 인 것 같아요.

(G교사. 2016. 10. 10.)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실습 지도교사들은 처음 보육현장을 접하는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 하다보면 보육교사로서 긍정적인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모두 예비보육교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바람직한 보육교사로서의 모델링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 교실환경, 말투, 행동에 더욱 신경 쓰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예비보육교사가 온다고 하면 신경이 쓰이죠. 그 분이 배워 가시는 것이니까요. 어디서 실습을 했는지, 어떤 선생님이 실습을 가르쳤는지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고 방식이 달라질테니 굉장히 신경 쓰이죠. 좀 더 모범적이게 일과 속에서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쓰려고 하죠. 저는 아이들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예의를 배우고 기본생활을 배우면서 놀이를 충분히 해가는 모습을 (예비보육 교사에게)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부분을 신경 쓰면서 많이 영향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모범적인 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E교사. 2016. 11. 10.)

실습기간 동안은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실 환경 정리부터 청소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까지요. 우리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실습을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함께 공유되는 공간이나 유희실 화장실 지나다니다보면 다 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예비보육교사에게는 처음 보는 보육교사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싫든 함께 있다 보면 닳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요. 용변 본 아이가 있을 때 급하니까 안고 그냥 뛰어 가고 그랬는데 (아이한테) 말 한마디라도 상호작용을 더 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걱정이 되고 부담되죠.

(I교사. 2016. 12. 9.)

위와 같이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모범적인 보육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물리적 환경구성을 재정비해야 하고 교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평소에 사용하는 행동이나 언어사용에 대해서 자기점검의 시간을 갖고 재정비 하면서 바람직한 모델링이 되기 위한 노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실습 지도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업무 외에도 실습 지도교사라는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즉,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 기간 동안 매일 이루어지는 실습 지도와 평가로 인해 본인 스스로 무력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습이라는 것이 적응을 하면서 일지도 써야 되고 새로운 서류 같은 것도 배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비보육교사가) 못해오는 경우가 있을 순 있지만 나도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예비보육교사 것도 봐줘야 되고, 나도 할 일이 많아서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맡겨지는 서류들과 예비보육교사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온전히 우리 반 것, 내가 해야 할 서류를 작성할 시간도 없는데 그 외에 시간까지도 끌어다가 예비보육교사에게 봐줘야 하고 내가 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비보육교사도 같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힘들죠.

(H교사. 2016. 10. 10.)

제가 예비보육교사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그 외에 것들을 해 주기에 저한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저희반 아이들에 관련된 서류나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벅차거든요. 그럼 피드백이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낮잠시간 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컴퓨터로 자료를 찾아봐야 하고 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오롯이 다 뺏기거든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보육교사가 9시에 와서 5시에 퇴근해서 가면 제가 붙잡고 이외의 것을 알려줄 시간도 솔직히 없어요.

(G교사. 2016. 11. 10.)

실습지도를 하면서 저한테 돌아올 평가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과 예비보육교사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온전히 내 서류할 시간도 없는데 그 외에 시간까지도 끌어다가 (예비보육교사에게)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서류는 집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되고요. 또 (예비보육교사가)실습을 마치고 나서 원장님이랑 면담을 할 때 원장님한테 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경쓰이고 스트레스가 되요.

(E교사. 2016. 11. 10.)

이처럼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교사로서 활동 준비 및 일지작성, 관찰일지 등의 고유 업무 외에도 실습 지도교사로서 예비보육교사의 실습일지와 활동계획안을 점검하고 지도해주는 역할, 평가하는 역할이 과중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3) 영유아 연령에 따른 어려움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려움은 유아반 교사보다 영아반 실습 지도교사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반의 경우에는 예비보육교사가 진행하는 부분수업이나 올데이 수업이 대-소그룹 활동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영아반은 활동 시간이 구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영아가 1:1 형식으로 자유선택 놀이시간이나 하루일과 속에서 예비보육교사가 영아의 컨디션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어려움이었다.

솔직히 0세반에서는 예비보육교사한테 뭘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난감하다. 올데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면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상호작용 해주고 그냥 그게 다인데 부분수업은 '뭐를 해야 되지?' 의문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실습 일지에 쓸 때에도 난감하고 표준보육과정 책자나 이런 것 참고해서 보라고 드렸더니 모빌하고 이런 것을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긴 했지만 영아반은 이런 것이 어렵다.

(I교사. 저널쓰기 중.)

나름대로 수업을 골고루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0세는 그게 안돼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개월 수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뭔가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낮설어서 우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한테(예비보육교사) 준비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J교사. 2016. 10. 24.)

영아반은 준비를 해오시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진행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비보육교사)선생님이 주의 끌기 위해 하시면 금방 왔다가도 하다보면 금방 흥미가 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영아는 배변 훈련을 하니까.. 준비한 활동 진행 하시다가 화장실로 급히 움직여야 하니까 흐름이 끊길 때도 있어요.

(F교사. 2017. 2. 12.)

또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에게 영아는 개월 수에 따른 발달 수준이 개인마다 다르고 활동 진행시에 언어적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영아가 보이는 행동이나 표정 등의 반응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였다. 하지만 영아들과의 시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비보육교사에게 상황에 따라 영아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때 마다 실습 지도교사가 적절한 지도방법을 보이며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유아반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이건 뭐야?” 하고 질문이라도 할 수 있고 “뭐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영아반은 보이는 행동, 표정 그리고 반응을 교사가 잘 살펴야 해요. 한마디로 애들 반응에 따라서 교사가 방법을 바꿔야 해요. 예측이 유아반 보다 영아반이 어렵죠. 한참 말이 많이 놀고 자기표현이 강해지는 시기잖아요. 놀이가 수업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가 용변을 보면 곧바로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상황마다 달라지는 그런 아이들의 반응에 어떻게 (예비보육교사에게) 설명하고 지도해야할지 어렵죠.

(H교사. 2016. 12. 25.)

저는 아이들이랑 있던 시간이 있고 이제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예비보육교사는) 그런 영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을 같이 보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니깐요.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의 집중 같은 것을 할 때에 교사 표현력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지도하고 알려주고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날 아이들 건강 상태나 기분에 따라서도 활동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달라지고 또 영아반은 수준차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영아들을 흥미로 끌어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을 (예비보육교사에게) 말로 설명하고 지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F교사. 2017. 2. 12.)

이처럼 유아반에 비해 발달 수준과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아반 실습 지도교사들은 부분수업과 올데이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예비보육교

사에게 적절한 지도방법을 보이며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4)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개인적 배경으로 인한 어려움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개인적 배경에는 학교의 형태와 학과, 연령, 성별, 국적 등이 있다. 먼저 학교에는 면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형태가 있었고, 학과에는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보육학과 등으로 다양했다.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학교의 형태와 학과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가 봤던 예비보육교사 중에서는 00과에서 오신 분들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실습 오기 전에 연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모의 수업처럼 학생들과 수업하고, 같은 친구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그래서 실습 오기 전에 연습했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 오면 저도 감탄하고 잘한다고 말해주고 그랬어요.

(H교사. 2016. 10. 10.)

00과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왔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도 어려워했고 “선생님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네” 대답만하고 정말 딱 그것만하고 그 이상의 것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근데 00과 경우에는 뭔가 하려는 의지 같은 것이 컸고 자료나 교구를 만들더라도 좀 더 아이들 발달에 맞춰서 견고하게 만들어 오려고 애쓰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D교사. 2016. 11. 6.)

아무래도 좀 00과 학생들은 좀 더 교육적인 것을 확실히 배우고 온 티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좀 더 살갑게 친근하게 다가간 쪽은 00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00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발달특징이나 그런 한 부분을 깊게 파고들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놀아주고 다가가시는 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E교사. 2016. 11. 10.)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지도하는 예비보육교사의 연령도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로 다양했다.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 개인이 가지는 삶의 기술이나 성향의 다름에서 느끼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실습 지도교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할 때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 이야기 하였다.

나이가 많은 분들 중 간혹 어린이집에 있으면 나이가 어리건 적건 경력자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아유 선생님~! 괜찮아요” 이러시면서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니까 (저와)트러블이 생기죠. 일과를 하다가 무슨 문제 상황이 생기면 “애기 키워보면 다 그래~” 차라리 어린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답답해요. 수업 하실 때도 처음에 좀 진행 하시다가 “아유 선생님 나 못하겠어!” 이러시고는 그냥 중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그냥 제가 했거든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 정말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G교사. 2016. 11. 10.)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 입장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고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나이가 많으신 예비보육교사가 오셨어요. 말투나 표현 이런 것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I교사. 2016. 11. 14.)

또한 일부 실습지도 교사들은 보육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예비보육교사들로 인해 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습 지도교사가 실습일정의 수행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요구를 하였을 때 예비보육교사가 지도내용에 대해 수긍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이거 한 번 해 오세요” 이러면 밤을 세서라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고 그랬는데...요새는 “선생님 못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해 올게요, 뭐가 어땀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날 바로 (예비보육교사가) 해 오는 것이 있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저한테 제대로 내주지 않으면 실습시간은 계속하고... 결국엔 제출도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D교사. 2016. 11. 6.)

제가 실습 일지에다가 목소리를 좀 더 키워주시라고 그리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해 주시라고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 드리고 일지에 적고 온통 그런 얘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도적이라도 목소리를 높여보고 ‘선생님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저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저는 지도교사로서 좌절감, 허탈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G교사. 2016. 11. 10.)

저희 반에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 몸을 만지고 그래요. 그러다보니 예비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낯선 곳에서 아이가 먼저와 가지고 예쁜 짓 하고 그러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 아이 하나만을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놀이에 함께 참여 해주시면서 살펴봐 주세요” 계속해서 말을 해도 그 아이 한명하고만 놀아주고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편하고 반응 있는 아이에게만 시선을 두는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H교사. 2016. 10. 10.)

위와 같이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습 일정안내와 과제에 대해 예비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기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습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실습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 일정 중에 예비보육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말투와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할 때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암묵적으로 실습 지도교사를 무시하는 듯한 불성실한 예비보육교사의 태도 및 행동에 어려움을 느꼈다.

3.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로는 예비보육교사의 기본적 자질 및 태도와 관련된 요구, 보육실습 관련 교육과정의 강화, 보육실습 기간의 확장 및 실습운영의 다양화,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위한 매뉴얼 및 재교육 실시, 실습 지도교사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보육교사의 기본적 자질 및 태도와 관련된 요구

실습 지도교사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는 무엇보다 예비보육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덕목은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인성이 바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걸러 낼 수 있는 제도가 쫓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실습 나오기 전에 인성 검사를 해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실습을 못 받는다면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보육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이들 자체가 천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썽부리고 속 썩이고 할 땐 악마 같고 정말 힘들 때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직업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인성이 안 된 사람이 보육교사를 하면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붙어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I교사. 2016. 11. 14.)

기본적인 인성으로 아이들을 봤을 때 즐거운 마음, 예쁘다 귀여워 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야 요즘 나오는 아동학대니 뭐니 그런 일들이 없어지죠. 이 일을 생계를 위해서 보육현장에 나와 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힘들어서 찢찢 매면서 짜증내고.. 여기(어린이

이집)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밝고 예쁜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J교사. 2016. 12. 1.)

또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실습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직무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현장기술을 습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에 대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센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최소한 아이들한테 교사라는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비보육교사 스스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 열심히 하는걸 보면 '성실하다' 생각이 들고 실수를 해도 예쁘잖아요. 실습을 할 때의 태도가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뭐든 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진짜 제일 크고 중요하죠. 조심스러운 것과 그냥 가만히 방관하듯 있는 것이랑은 다르잖아요.

(E교사. 2016. 11. 10.)

저는 예비보육교사가 패기 같은 그런 당찬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습에서)뭘 배우고 싶은지 목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것 보다 잘하든 못하든 뒤로 물러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러 온 학생이니깐요.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더 (예비보육교사를) 배려하게 되고 더 잘해 주게 되거든요.

(H교사. 2016. 10. 10.)

기본적으로 뭔가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직업이라면 먼저 좀 다가가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열린 마음으로 와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좀 보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G교사. 2016. 11. 10.)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육실습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비록 예비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보육실습을 통해 처음 겪어 보는 여러 가지 일들에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하기에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든 과업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예비보육교사의 태도는 실습 지도교사에게는 성실함으로 비춰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현장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보육교사가 실습기관에서 추구하는 보육철학과 실행하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예비보육교사가 실습에 참여하게 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특성 및 놀이방법 등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노력은 예비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태도라고 생각하였다.

손유희 같은 것을 좀 준비 해 오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도움이 되니까요. 유치원은 교사가 아이들과의 일과가 끝난 후에 수업준비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다보니 근무시간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늘 부족하고 잔무가 많잖아요. 근데 또 긴 시간(어린이집에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 즐겁고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준비 해줘야 하니까 (실습을 오기 전에) 간단한 손유희나 연령별 게임 같은 것들, 재미있는 놀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준비 해 보는 것도 좋죠.

(I교사. 2016. 12. 9.)

실습 들어가게 되는 그 반의 연령에 대한 발달 특성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더 긍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책이 많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렇게 준비 없이 오시는 것은 조금 불편하죠.

(A교사. 2017. 3. 21.)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한다고 마음먹었으면 기본적인 이론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이론은 저도 교사생활하면서 조금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책 찾아보고 공부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알게 된 경우도 많지만 그런 깊이 있는 이론이 아닌 기초적인 것 말이에요. 최소한 몬테소리 어린이집이면 몬테소리가 누구며 어떤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그 정도의 이론이요.

(B교사. 2017. 3. 21.)

이처럼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손유희를 준비하거나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실습기관에서 추구하는 교육관 및 그와 관련한 교구 사용방법을 파악하는 것 등이 예비보육교사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실습기간 중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보육실습 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의 체력관리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라고 지적하였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하다보니까 몸이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비보육교사가) 실습 중간에 되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봐도 피곤하고 힘든 것이 느껴지고요. 안쓰럽고 그래요. 스스로 건강이나 그런 체력 관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실습을 하는 태도죠.

(C교사. 2017. 3. 21.)

2) 보육실습 관련 교육과정의 강화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예비보육교사들이 수업 진행을 하면서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당황해하거나 보육일지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면교육이 아닌 온

라인수업을 수강하는 예비보육교사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온라인수업은 자격 취득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지만 보육교사 양성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태도와 마음가짐을 흡수하여 배우고 어린이집의 다양한 상황에서 순간의 판단력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천적 지식을 배우기 위한 상황 연출, 실무 능력 습득을 위한 토의와 모의 수업 등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이미화, 강은지, 김은영, 김길숙, 엄지원, 2016). 이에 실습 지도교사들은 학교 교과과정에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문서 작성법과 모의수업 같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늘려 제공 해 주기를 바라였다.

일단은 좀 모의수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 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랑 뭐가 다른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배워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모의수업을 많이 하면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상호작용 할 때도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아예 없거나 몇 번 안 해 본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이버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더 없으시잖아요. 예비보육교사들 끼리도 그런 차이가 많이 나요.

(D교사. 2016. 12. 11.)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기관특성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줘서 예비보육교사가 현장에 왔을 때 ‘아 내가 학교에서 들던 것이 이런 부분을 말 하는구나’ 느꼈으면 좋겠어요. 일지 같은 서류 작성하는 기본 적인 것부터요. 계획과 실행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기본 인식 같은 것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터넷으로만 수업 듣다가 오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계획한 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죠. ‘모의 수업 같은 간접적인 경험이 너무나 없구나’하고요.

(A교사. 2017. 3. 21.)

학교에서 관찰일지라는 것을 쓸 때 그냥 매일 아이를 보고 적는 것이 아니라 아동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모르고 와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예비보육교사가)어떤 교육까지 진행 해본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현장에 있는 실습 지도교사로서 좀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배웠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의수업 같은 활동도 많이 해보고 오면 훨씬 좋죠.

(F교사. 2017. 2. 12.)

이렇듯 실습 지도교사들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이원화된 기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모의수업의 기회를 늘리며, 관찰일지, 실습일지 작성에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예비보육교사가 실제 보육실습에 투입되었을 때 현장과 이론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비보육교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무 시간과 예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학교에서 알려주고 일러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교수님 하시던 말씀이 (실습을 나가서)절대 지각은 안 되고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을 열 번 봤으면 열 번 인사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런 인사 예절 근무시간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예비보육교사가) 아침에 지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시간 안에 완료해야 되는 교재 교구나 활동자료, 계획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많고 그러면서 본인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인지도 못하는 예비보육교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B교사. 2017. 3. 21.)

더불어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경력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보육교사들

과의 긍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 의사소통의 방법, 자세 등
대한 교육내용의 교육을 제공 해 주기를 바라였다.

요즘에는 하다못해 멘토 멘티 리더십해서 이런 교육을 원감이나 경력
많은 교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젊은 교사들하고의 유대관계가 되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예비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배
우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교사들도 선배교사들하고 어떻게 지
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멘티로서의 자세, 역할이나 뭐 그런 것들, 배
워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이요. 그냥 책 속에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의수업의 일환으로 실전처럼 학교에서 한번 해보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F교사. 2017. 2. 12.)

3) 보육실습 기간의 확장 및 실습운영의 다양화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마친 후 예비보육교사가 실제 보육현장의
보육교사로 투입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육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간
과 기간에 대해서 대부분 ‘짧다’ 라고 생각하였다.

실습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보육교사로서 바로 투입되기에는 너무 짧
죠. 너무 짧고 그러다보니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은 3개월 정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면서 그때 합
격 불합격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죠. 무조건 다 이 자격증을 남발해서 주
지 말아야 되요. 제 생각에는 정말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사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되기를 바라다면 나름의 첫 거름망은 보육실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j교사. 2016. 10. 24.)

또한 실습이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연령별 교실 배치에 대해서는 예비보육
교사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영아반 유아반 모

두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육현장으로 바로 취업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 연령을 경험 해보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예비보육교사)입장에서는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연령 반을 배정 받게 되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영아반도 유아반도 한번씩 해보고 그러면 첫 담임을 맡아 시작할 때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H교사. 2016. 10. 10.)

일단 저는 영아반 유아반 한번 씩은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만약에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영아반으로 들어갈지 유아반으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영아반에 들어갔는데 나는(실습을) 유아반 밖에 안해 봤으면 어렵고요. 영아반 유아반이 워낙 다르니까 경험이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G교사. 2016. 11. 10.)

한 연령에서 계속해서 지내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여러 연령을 들어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0세반을 실습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적 취업은 3세 이상 반을 들어가게 된거죠. 그랬을 때 오게 되는 아이들의 격차는... 영아반과 유아반이 전혀 다르잖아요.

(I교사. 2016. 11. 14.)

더불어 일회성 보육실습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나 인턴십 등으로 사후에 지속적으로 현장에서의 감각을 유지하고 지속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보육실습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자원봉사도 하고 인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장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는 뭐 실습시간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선 다 그 정도 시간으로 한다니까 한국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자원봉사나 다른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 커리큘럼 내에서 조금씩 이뤄지면 이 길이 나한테 맞는지도 파악하고 어떻게 아이들과 지낼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고 나름 느낄텐데 말이죠. 사전실습이라 그래서 유아교육과는 사전실습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보육과나 사이

버 대, 평생교육원 같은 곳은 없어요. 그냥 본 실습만 와요. 그것도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A교사. 2017. 3. 21.)

이와 함께 면담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평가표에 제시된 점수 기준의 항목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점수화 하는 것에 부분에 모호함을 느끼고 있었다. 보육실습 평가방법에 대한 요구로는 평가목록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그러한 부분을 실습 지도교사가 체크하여 척도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지금 실습평가는 보면 근무태도 10점, 보육활동 능력 10점 뭐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점수를 주기에 너무 애매해요. 평가목록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이렇게 좀... 그래서 척도로 나가는 거죠. 점수는 학교에서 배정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되게 애매해요. ‘졸업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앞서서 실습을 정말 못해도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우니 어린이집에서는 체크형식만 하고 그것을 보고 점수화 하는 뉘은 학교로 갔으면 좋겠어요.

(F교사. 2017. 2. 12.)

좀 세부적이게 파악될 수 있도록 좀 자잘하게 점수를 나누고 항목도 나누었으면 해요. 그러면 좀 더 예비보육교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부분수업이나 올데이 수업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의 큰 비중을 두지 외모적인 부분이나 보육교사 답지 못한 언어를 쓰거나 그런 부분은 아예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니까 아예 점수를 줄 때 좀 구체적으로 체크가 되게 하고 여러 부분의 합산으로 점수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비보육교사도 사람인데 조금 말실수 한 것을 가지고 점수를 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반복하고 고치려는 의지가 없고 지적과 조언에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예비보육교사는 스스로 고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것도 하나의 태도로서 점수를 부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D교사. 2016. 12. 11.)

아울러 보육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회성에 그치는 현재의 평가방법 보다는 실습 지도교사가 매일 혹은 주별로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예비보육교사를 주기적으로 누적한 평가 지를 학교 측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보육실습 최종 평가점수를 도출하는 주관은 어린이집과 실습 지도교사가 아닌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습 평가서가 달랑 한 장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봐온 날들을 다 기억하면서 점수화 하기는 쯤 아니잖아요. 조금씩 발전되어지는 평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한 장안에 축소되기는 어렵단거죠. 매일 일지를 봐주듯이 평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럼 (평가표가) 6장이잖아요. 최소한 한 장보다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의 대한 사항까지도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점수 말고 체크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된 것은 (어린이집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몇 점입니다”하고 (예비보육교사) 선생님한테 점수를 주는 것을 학교 측에서 맡아 했으면 좋겠어요.

(I교사, 2016. 12. 9.)

이렇듯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평가방법에 대한 요구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한 척도형태의 평가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간을 두고 누적하는 평가방법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보육실습 최종 평가의 주관은 보육실습을 지도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이 아니라 예비보육교사가 소속 된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같은 요구는 실습 지도교사 자신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의 성패를 좌우하고 이로 인해 예비보육교사의 진로에 자신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인식하면서 생기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석된다.

4)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위한 매뉴얼 및 재교육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에 참여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실습관련 문서 양식의 형태가 각기 다르므로 일반화된 실습관련 문서형식을 비롯하여 예비보육교사를 실습지도 하는 과정에서 실습 지도교사간의 개인차가 발생되므로 보육실습 내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실습 지도교사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마다 추구하는 것이나 틀이 좀 다르잖아요. 일지형식도 그렇고 모의수업 횟수도 그렇고 제출교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관찰일지인데 어떤 학교는 객관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써야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곳은 한 달에 아이 한명에 대해서만 써도 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과제들이 다르니까 이런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런 것들부터 다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습 지도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는 매뉴얼이 있다면 실습 오는 예비보육교사도 편할 것 같고 지도교사들한테도 일관된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교사. 2017. 3. 21.)

‘어떻게 지도해라’ 그런 세세한 부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예비보육교사의 실습지도에도 뭔가 이렇게 평준화 되고 제도적인 게 있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수월 해 질텐데.. 지금 실습 지도서는 너무 큰 틀만 정해져 있어서 도움이 사실 안 되는 것 같다. 내용에 모의수업을 잘 못했을 때나 일지 작성이 안 될 때 실습 지도교사의 지원방법, 어린이 집이니까 기저귀 갈고 양치시키고 이런 것들, 특히 아이들 간 갈등 상황이 다양하다 그런 상황별 대처법 같은 것도 플랜이나 예시가 있으면 지도하기 좋을 것 같다.

(I교사. 저널쓰기 중.)

예비보육교사한테 가르쳐 줘야 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책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르쳐 주고 싶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알려주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습 지도교사로써)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미숙한 부분이 생기지 않게 체크하고 (예비보육교사들)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부족하진 않은지 돌아보고 체크 할수 있는 사항이 추가 되면 좋겠고요.

(D교사. 2016. 12. 11.)

보육실습 지도 매뉴얼은 학교와 보육실습기관에게 보육실습의 일반화된 기준이 되어 주고 특히 실습 지도경험이 처음이거나 횟수가 적은 보육교사에게는 더욱 유용하게 작용되어 실습 지도교사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아무래도 매뉴얼이 있다면 그 순서에 맞춰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학교 하고 어린이집 두 곳에서 모두 같은 매뉴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도 학교 책상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실무적인 것 들,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가이드 잡기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 않는 실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실습 지도를 많이 해 본 교사는 개인마다의 스킬이 있잖아요. 근데 경험이 부족한 실습지도 선생님은 뭔가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렵고 난감하고 주변 다른 선생님들께 물어보거나 어디서 찾아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뉴얼이 있으면 진짜 좋은 방법이죠.

(J교사. 2016. 12. 1.)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 중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를 위해 한국 보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지침서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침서에 대해 알고 있는 실습 지도교사들 또한 실습지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실습 지도교사들은 매뉴얼의 내용으로 일지,

관찰일지 형식과 모의수업과 교재교구 제출 횟수 등을 비롯하여 기저귀 가는 법, 식사 지도법등의 일상생활 지도와 상황별 지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 보육실습기간 동안 예비보육교사에게 알려줘야 할 부분들과 지도교사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실습지도 교사가 자신의 예비보육교사 시절의 보육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함으로써 자신의 지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감소하고 싶은 바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 기관마다 실습 형태와 방식이 다르기에 보육실습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습 지도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강의 또는 대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이 개설되고, 실습지도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육 내용에 차이를 두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매뉴얼 물론 좋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전문
가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공통의 사항들은 교육받아야죠. 교육도 혼자
판단하고 해석해보면서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이라 질문 할 수 있고
얼굴을 보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량은 다르잖아요. 각자 자신한테 맞는
교육 스타일이 있잖아요. 내용이 실습 지도교사라고 해서 생소한 것들이
아니라 일지작성방법, 상호작용, 원내 행사진행, (예비보육교사)지도방법
들인데 그런 교육은 두 번 세 번 들수록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왕이면
(보육실습 지도를)처음 해보는 보육교사들과 경험 있는 교사들은 교육 수
준이나 내용에 조금 차별을 두고 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비보육교사에게)접근 방법이나 이해방법 그리고 그들의 공
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의 폭은 경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를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
요.

(F교사. 2017. 2. 12.)

5) 실습 지도교사 업무에 대한 보상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습지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과중한 업무와 함께 보육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과 시간외 근무수당, 실습 지도교사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예비보육교사가 내는 실습비는 실습지도 교사들한테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요. 실습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치는 데도 있지만 그냥 아는 사람이 소개로 가서 점수 따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습 지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인데 너무 보상 없이 책임만 따르는 것 같아요.

(C교사. 2017. 3. 21.)

예전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는 실습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실습 비를 줬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5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요. 예비보육교사가 원장님께 실습 비를 드리는데 그걸 원장님이 실습 지도한 교사에게 수고했다고 주시는 거죠. 그런 보상이 되니까 좋았어요. 되게 작은 것이지만 보상의 의미로 느껴지니까 좋았어요. ‘좋네, 다음에 또 받고 싶다’생각이 들었죠. (다른 실습 지도교사)주변에 물어보면 그렇게 실습 비를 받아 본 선생님이 많이 없더라고요.

(A교사. 2017. 3. 21.)

사실 어린이집 월급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누군가를 지도 하면서 시간외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시간외수당 같은 거죠. 실습지도로 인해서 내가 내 일을 못하고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함으로써 일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서 그렇게 (수당으로)쳐주면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D교사. 2016. 12. 11.)

이와 같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 이유는 보육교사의 역할 외에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가중되는 책임감과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인정으로 보상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반해 면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지불하는 비용에 포함 된 실습지도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습 지도교사 중에는 보육실습 지도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적인 지원보다 시간적인 휴식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적인 부분을 보상으로 받고 싶어요. 보육교사는 쉬는 시간이 많지 않고 휴가를 내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원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월차 연차 내고 싶을 때 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비보육교사가 오고 그러면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평소보다 더 과중되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를 주면 좋겠어요. 쉼이 보육교사들한테는 가장 좋은 보상이니깐요.

(I교사, 2016. 12. 9.)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습 지도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지도교사의 역할과 실습지도 과정에서 실습 지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보육실습을 위한 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하는 역할

첫째, 보육실습지도 교사들은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로 예비보육교사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 개인적 취미 등의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선(2012)은 예비보육교사와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실습지도 교사가 실습 기간 내내 개방적인 소통과 공유를 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평가시간을 소통의 장으로 다양한 교수전략을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지도교사도 하루의 평가시간을 통해 예비보육교사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예비보육교사가 보이는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임승렬(2004)과 박은미(2009)는 보육실습의 핵심 관계인 실습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의 관계의 질이 곧 실습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정서적 지원과 배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와 실습 지도교사 간에 개방

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더욱 긍정적인 실습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예비보육교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정서적 공감자의 역할을 통해 점차 성장하고 발전하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실습 지도교사들은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를 통해 유아반의 경우 더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영유아들과의 놀이에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영아반은 개별 보육활동과 교사의 화장실 사용에서 도움 받으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는 장봉춘(2008)의 연구에서도 실습 지도교사가 교육실습생을 활동의 계획 및 수행 보조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며 함께 배우는 동료 교사로 보는 관점으로 바람직하게 변화가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더불어 실습이 끝난 후에도 실습 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는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보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료적 관계로 발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예비보육교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귀옥 외(2016)의 연구에서도 실습 기관에서 보육실습에 관한 제반규칙을 결정하고 지침서를 만들어 실습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으로 전남련, 정명희(2013)는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실습생소개하기, 실습생 반배정과정 지도교사 소개, 어린이집 보육방침과 보육프로그램소개, 근무요령과 실습생으로서 가져야할 태도 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박은혜, 조은주, 2013; 문혁준 외, 2012) 오리엔테이션은 예비보육교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장에 대한 적응력과 친근감을 빠른 시일 내에 형성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유아 연령의 특성과 하루일과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어린이집의 교실 및 복도, 자료실, 교재교구 실 등 다양한 물적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더불어 예비보육교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비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따라 실습일정을 수정,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생이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고 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정남미, 2015).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잔일을 예비보육교사의 몫으로 넘기지 않고 퇴근시간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등 예비보육교사에 알맞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에서 생기는 위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교수 모델로서의 역할로 모범적인 보육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실의 수업준비와 교구를 재정비 하며 평소보다 더욱 수업준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병예, 양성은(2013)의 연구에서도 실습 지도교사는 자기점검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예비보육교사에게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노력하였다. 이는 수업시간이나 행동 지도 시 바람직한 영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어 실습생이 교사로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적절한 상호작용 기술을 터득하도록 실습 지도교사는 시범을 보여주었다는 문혁준 외(2012)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유병예(2013)의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는 실습지도교사의 교수방법과 같은 전문적인 보육활동 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까지 모델링한다는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가

예비보육교사에게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이 잘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긍정적인 보육교사의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습 지도교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예비보육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실습지도가 실습 지도교사에게 보육교사로서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는 반성의 회고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한 임승렬(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넷째, 실습 지도교사는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자로서의 역할로 예비보육교사의 교재교구제작을 위해 연령, 종류, 놀이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해 주고 예비보육교사의 활동 진행시에는 적절하게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은혜, 조은주(2013)의 연구에서도 지도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주고, 바람직한 수업모형을 제공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교수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일지,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관찰일지 등의 문서 작성을 지도하고 필요시에는 자신이 작성한 보육일지를 보여주어 실제 보육교사가 진행한 활동의 계획안 작성, 평가 작성, 지도방법 등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이 같은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자 역할을 통해 예비보육교사가 일지작성 및 영유아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점차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자신이 한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실습 지도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선(2012)의 연구에서도 발전적으로 변해가는 실습생을 보면서 보람과 자부심의 감정들이 교직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고

교사 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섯째,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제 보육교사의 역할과 경험을 예비보육교사에게 소통 해 주는 역할을 하며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습 지도교사는 학부모와 소통을 위한 알림장의 쓰임과 작성방법을 예비보육교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자신이 보육교사로서 경험한 사례를 소통하였다. 또한 영아반에서는 기저귀 갈이방법, 수유방법 등을 설명해 주고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오지연(2005)의 연구에서도 학급의 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참여, 부모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경험해 보는 것을 실무지도라 하였고 이러한 실무지도는 교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본바탕이므로 기관 운영의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앞으로 유아교사가 될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여섯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주변과의 소통을 돕는 통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보육 현장의 인적 환경인 영유아, 학부모와 동료교사, 원장, 원감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교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실습생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정체성에 갈등하였다는 윤희경(2007)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습 지도교사들이 영유아들과의 생활속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이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적시에 투입되도록 돕고 있었으며, 학부모와 동료교사에게 예비보육교사의 노력과 역할이 잘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소통하여 예비보육교사에게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첫째, 실습 지도교사들은 교실공개와 모델링 역할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해하지 못하고 예비보육교사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 이 같은 이유는 예비보육교사가 자신의 말투, 행동 등을 모델링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보육인 양성가로 정의하여 역할 모델로서의 자기점검을 통해 자기 반성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자기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으로 유병예, 양성은(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실습 지도교사 자신이 유아교육전공자가 아닌 관련 학과 출신이기에 자신의 교수방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생기는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모델링을 위해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 교실환경, 말투, 행동에 더욱 신경 쓰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는 실습 지도교사가 예비보육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않지만 교실 질서를 잡기위한 아동통제 전략이나 수업활동 시 영유아들의 주의를 집중 시키는 전략, 까다로운 아동과 상호작용 하는 방법 등을 보이게 되고 예비보육교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기 때문으로 남명자(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실습 지도교사의 어려움은 예비보육교사가 자신에게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기는 부담으로 해석된다.

둘째, 실습 지도교사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업무 외에도 실습 지도교사라는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이진숙(2003)의 연구에서도 지도교사는 전에 없던 일을 추가로 얻게 되어 역할 과중이 생기고 예비보육교사에게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지,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실습지도교사로서 어떻게 평가 받을지 등의 역할의 모호성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면담에 참여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교사로서 활동 준비 및 일지작성, 관찰일지 등의 고유 업무 외에도 실습 지도교사로서 예비보육교사의 실습일지와 활동계획안을 점검하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비롯하여 평가하는 역할이 과중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은 정규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근무 등 과다업무와 시간부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조운주(2001)의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영유아의 연령에 따르는 실습 지도의 어려움은 영아반 실습 지도교사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예비보육교사가 진행하는 부분수업이나 올데이 수업이 유아반의 경우에는 대-소그룹 활동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분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영아반은 자유선택 놀이시간이나 하루일과 속에서 불분명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상황에 따라 영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때마다 예비보육교사에게 적절한 지도방법을 보이며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에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김정신, 송경애(2010)의 연구에서 영아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교수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때 곧 싫어하거나 관심을 잃어버리는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반응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넷째,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개인적 배경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개인적 배경은 학교의 형태와 학과, 연령, 성별, 국적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학교에는 면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형태가 있었고 학과에는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보육학과 등이 있었다.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개인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습 지도를 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예비보육교사 연령에 따라 개인이 가진 삶의 기술이나 성향이 다를음을 느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할 때에 어려움이 크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과의 실습생만을 지도하는 유치원의 교육실습과는 달리 예비보육교사가 가지는 개인적 배경이 매우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실습의 특성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어린이집 보육실습에 참여하는 예비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필수적인 사항들을 표준화 하여 어린이집 보육실습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습지도 교사들은 불성실한 예비보육교사의 행동과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2003)의 연구에서 실습생은 부분수업, 연결수업, 전체수업을 통하여 실습생의 교수수행 능력의 변화나, 지도 및 평가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때 실습생에게서 스트레스는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습일정의 수행과정에서 실습 지도교사가 예비보육교사에게 한 조언과 요구를 수긍하지 않고, 실습과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가 예비보육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말투와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할 때 과민한 반응 또는 암묵적으로 실습 지도교사를 무시하는 듯 한 불성실한 태도에 더욱 어려움을 느꼈다.

3)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

첫째,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로 무엇보다 먼저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유병예, 양성은(2013)의 연구에서도 실습 지도교사가 말하는 보육교사의 자질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다음으로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에 대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유병예(2013)의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가 준전문가로서 보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져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보육교사가 실습기관에서 추구하는 보육철학과 실행하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 및 놀이방법 등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보육실습 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의 체력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김재환(2009)의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의 일반적 자질인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의, 용모, 언행·교양, 보육에 대한 신념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에 성실하게 임할 때 실습 지도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둘째,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관련 교육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문서 작성법, 관찰일지, 실습일지 작성에 관련한 교육, 모의수업과 같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더욱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최명아(2013)의 연구에 참여한 원장, 원감, 교사가 실습생의 실무실습시 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연간·월간·주간 작성이 더 다루어져야 한

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대균, 김선구(2009)의 연구에서 예비 유아 교사들은 대학의 모의수업에서 실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전체 유아의 집중을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승렬(2004)의 연구에서 학교교육과 보육현장 간의 괴리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실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들이 수업을 진행 하면서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당황하고 보육일지 작성 시 실습지도교사에게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승렬(2004)의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는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때 예비보육교사가 실제 보육실습에 투입되어 현장과 이론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예비보육교사가 교과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실습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습 지도교사들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이원화된 기관의 차이와 특징에 대한 교육과 예비보육교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무 시간, 예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셋째,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기간에 대해서 보육 현장으로 예비보육교사가 바로 투입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 하였고 보육실습 이수기간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배소연 외(1994)의 연구에서 실습기간이 그 중요성에 비해 짧아 실습생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 이라고 보고된 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 보육교사에게 영아반과 유아반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보육 실습을 마친 후 바로 취업하는 예비보육교사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명아(2013)의 연구에서도 사전실습은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사후실습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보육실습 프로그램의 구성을 참관실습과 정규실습으로 나누어 진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규실습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실습생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실습기관에서는 사전 실습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우지선, 2009). 또한 보육실습의 효율화를 높이고 성공적인 보육실습 위해 사전실습-정규실습-추후 실습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습 지도교사들과 예비보육교사의 경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들은 이러한 사전실습을 비롯하여 자원봉사나 인턴십 등으로 보육실습이 끝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육현장에서 감각을 유지하고 지속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평가표에 제시된 점수 기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체크형식인 척도평가를 바라고 있었다. 이 같은 실습평가는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비보육교사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습 평가 척도를 제시하여 불안감을 감소해 주어야 한다(라은미, 2011). 또한 본 연구에서 실습 지도교사들은 현재 1회성으로 끝나는 보육실습 평가방식 보다 매일 혹은 주별로 일정 기간을 두고 나누어 평가하는 누적평가를 지향하였고, 보육실습 최종 평가점수를 도출하는 주관은 어린이집과 실습 지도교사가 아닌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요구는 실습 지도교사 자신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의 성패를 좌우하고 이로 인해 예비보육교사의 진로에 자신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인식하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습이 끝난 후에는 대학 측과 어린이집 측, 실습생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 협의회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평가자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나귀옥 외,

2016).

넷째,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위한 매뉴얼과 그에 따른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실습에 참여하는 예비보육교사의 개인적 배경이 학과, 연령, 성별, 국적 등 모두 달라 실습 지도교사가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숙(2015)의 연구에서 실습지도 내용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표준 실습 지도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김정신, 송경애(2010)의 연구에서도 전문적인 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려면 실습지도교사의 개인차에 의해 발생하는 실습지도내용의 편차를 줄이는 실습지도 공통지표가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표준화된 매뉴얼은 보육실습 지도 역할과 내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고, 학교와 보육실습기관에게 보육실습의 일반화된 기준을 제공하여 실습 지도경험이 많지 않은 보육교사에게는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완(2000)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습 지도교사 매뉴얼 내용에 일지, 관찰일지의 기본형식과 모의수업 횟수와 방법, 교재교구 제출 횟수를 비롯하여 기저귀 가는 법, 식사 지도법 등의 일상생활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되기를 바라였다. 이는 본 연구의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대부분 과거 자신이 예비보육교사 시절 경험하였던 보육실습을 바탕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재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감소하고 싶은 바람과 자신의 지도가 예비보육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비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렬(2004)의 연구에서도 교육철학이 확고하지 않고 예비보육교사를 지지하거나 발전적이지 못한 교사에게서 실습을 받는다면 지속적인 실습지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반면 심윤희(2016)의 연구에서 어린이집마다 보육실습 내용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이를 개발하고 보육운영 하도록 배포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지침(한국보육진흥원, 2013)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현장의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한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 지도교사들 중에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지침서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침서에 대해 알고 있는 실습 지도교사들 또한 실습지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실습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실습지도교사의 적절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유홍옥, 유영의, 2004), 보육교사의 역할과 보육실습교사의 역할은 다르며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이승경,2015) 실습 지도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실습 지도 불안 감소를 위해 실습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은미, 2011). 본 연구에서도 실습지도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강의 또는 면대면 교육 개설과 실습지도 경험의 유무에 따라 내용의 차이를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 해 볼 때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보육실습 지도교사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교육개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습 지도교사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과 시간외 근무수당, 실습 지도교사 수당을 바라였다. 이는 임승렬(2004)의 연구에서도 실습지도교사의 스트레스 감소방안으로 기존 업무량을 줄여 줄 것과 실습지도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실습 지도교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보육교사와 실습 지도교사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과중한 업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가중되는 책임감 등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향 외(2010)연구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지도수당을 받고 있지 않았으

며, 보육실습지도비와 보육실습 지도수당에 대해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준보육실습 지도 비를 책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지불하는 비용에 포함된 실습 지도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습 지도비는 보육실습 목적을 위한 기관의 역할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며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신, 송경애, 2010). 따라서 보육실습지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다 폭넓게 연구하여 실습 지도교사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과 어려움, 요구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본 결과,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예비보육교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보육실습의 내용과 어린이집의 일정, 근무상의 유의점 등을 소개하고, 예비보육교사를 고려하여 실습일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는 교실의 재정비와 함께 영유아들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교수모델로서의 역할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의 교구계획서 작성과 제작과정을 비롯하여 계획안 작성, 평가방법, 지도방안을 조력하는 전문가적

지식의 공유 역할을 하였고, 어린이집 생활에서 겪게 되는 실제 보육교사 경험을 예비보육교사에게 공유하고 소통 해 주는 역할도 함께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가 주변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이 보육실습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실습 지도교사들은 물리적 환경구성을 재정비하고 교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며 예비보육교사에게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모델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업무 외에 실습 지도교사라는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과중과 함께 영아반 실습지도의 경우에는 영아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때 마다 매번 적절한 지도방법을 보이며 예비보육교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들은 예비보육교사가 가진 학교의 형태와 학과, 나이 등의 개인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예비보육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및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과적인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의 요구를 알아본 결과, 먼저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의 기본 자질로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어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들은 보육실습 관련 교육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체계적인 이론과 함께 문서 작성법을 비롯하여 모의수업 같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늘려 제공되기를 바라였고, 보육실습 운영방법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를 경험 해 보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더불어 실습 지도교사는 일회성 보육실습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나 인턴십 등으로 사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을 평가할 때에는 항목을 세분화한 척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함께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 내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교사를 위한 보육실습 지도 매뉴얼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기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습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 및 보상을 희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육실습 지도교사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실습이 체계적으로 개선을 위한 도움이 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로 면담이 이루어졌고, 과거의 실습지도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직장,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만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는 보육실습 지도에 대한 경험이 지역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습지도 경험이 많은 실습 지도교사와 그렇지 않은 실습 지도교사와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습지도 경험에 따라서 실습 지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보육실습을 지도할 때의 경험을 면담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진행 당시에 보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보육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보육실습 지도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2013). 유아교사를 위한 현장 교육실습의 이해. 경기: 21세기사.
- 김경희, 문혁준, 김선영, 김신영, 김지은, 김혜금, 서소정, 안선희, 안효진, 이희경, 정선아, 황혜원(2016). 보육학 개론. 서울: 창지사
- 김남희(2009).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변화. 생태유아교육연구, 8(4), 85-114.
- 김수향, 손지향, 안지령, 오선영, 이용주, 이은진(2016).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현장실습. 서울: 동문사.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1.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의향, 서문희, 성미영, 민미희(2010). 우리나라 보육실습의 현황분석: 사전교육, 보육실습 운영내용, 순회지도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243-265.
- 김지영, 손은경, 김숙희, 손혜경(2017). 보육실습. 경기: 양서원
- 김재환(2009). 보육실습 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의 실습평가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2, 45-59.
- 김정신, 송경애(2010).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지도 중점 내용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0(1), 91-107.
- 나귀옥, 김경희,곽정인(2016). 보육실습. 서울: 학지사
- 남명자(2008). 보육실습에서 겪은 실습교사의 관계 경험과 그 의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2(5), 5-29.
- 라승선(2012). 보육실습 지도교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조사. 참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라승선, 이춘자(2013). 보육실습 지도교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조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25-49.

- 라은미(2011).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불안과 지도교사의 실습지도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혁준, 백혜리, 김정희, 김혜연, 김민희(2012). 보육실습. 서울: 창지사.
- 박은미(2009). 예비 유아교사들의 실습불안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195-218.
- 박은혜, 조은주(2013). 반성적 실천을 위한 유아교육 실습. 서울: 창지사.
- 박지완(2000). 유아교육 및 보육실습 실태와 실습생의 인식조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소연, 윤기영, 조부경(1994).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실습 현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서울.
- 신현주(1998). 유아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은희(2011). 보육교사 직무에 대한 실습 지도교사의 인식. 아동보육연구, 7(2), 47-68.
- 심윤희(2016). 보육실습기관에서 들려주는 보육실습 의미와 개선방안. 한국보육학회지, 16(2), 17-38.
- 송주승(2015). 예비유아교사가 현장실습을 통해 지각한 교육신념과 갈등의 변화.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희, 임영옥, 서지원, 서영선(2012). 영유아보육 교육기관 실습의 이론과 실제. 경기: 21세기사.
- 오지연(2005). 유아교육 실습유형에 따른 지도교사의 역할 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지선(2009). 보육실습생의 역할에 대한 현직보육교사와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병예(2013). 예비보육교사와 실습 지도교사의 실습 경험에 관한 비교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병예, 양성은(2013). 보육교사의 실습지도 경험에 관한 반성적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5, 143-157.
- 유홍옥, 유영의(2004).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육실습 현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 논점, 8(2), 77-110.
- 윤지혜(2015). 실천적 지식 형성의 장으로서 보육실습 경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희경(2007).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실습생이 보육실습에서 경험한 갈등 분석. 영유아교육연구, 10, 33-54.
- 이경선(2012). 유아교육기관 실습지도 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대균, 김선구(2009). 교육실습 기간 중에 나타난 예비유아교사 수업의 특징. 유아교육학논집, 13(3), 313-338.
- 이명순(2000). 유치원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화, 강은진, 김은영, 김길숙, 엄지원(2016).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육실습 매뉴얼 연구. 서울: 육아정책 연구소.
- 이소희, 강경자, 마미정, 김주아(2006). 교육학개론. 부산: 대왕사.
- 이승경(2015). 보육실습교사 역할인식에 대한 연구 -현직보육교사와 보육실습교사 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미(1996). 교육 실습 지도교사의 연학 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2014). 어린이집 초임 주임교사의 역할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명지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1995). 유아교사론. 경기: 양서원.
- 이진숙(2003).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의 실습관련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연(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에 관한 연구:보육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호영(2006).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에 관한 개념도 분석. 성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승렬(2004). 실습지도교사의 실습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33, 221-234.
- 임현숙(2011). 보육교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효진(2007). 교육·보육실습의 실태와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인식: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경(2004).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현행 교과과정분석과 대안적 교과과정 제안. 아동복지연구, 2(1), 75-94.
- 장봉춘(2008). 유치원 교육실습생의 역할에 대한 실습 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의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하진, 이옥, 백선희(2015). 한국의 보육정책. 경기: 공동체.
- 전남련, 정명희(2013). 보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경기: 양서원.
- 정남미(2015). 유아교육실습. 서울: 정민사.
- 조운주(2001). 유아교육 실습 지도교사 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희진, 김정신, 노은호(2003). 보육실습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3(2), 234-276.

- 최명아(2013). 유치원 교육실습 현황과 교육실습 개선에 대한 요구. 덕성여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진숙(2005).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전후 인식비교. 아동학회지, 26(4), 113-123.
- 한유진, 최인숙, 이대균(2015). 한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보육교사들의 이야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563-591.
- 한은숙(2015). 보육실습. 서울: 동문사.
- 한국보육진흥원(2013). 양성교육기관에서의 보육실습 지도. 서울.
- 한국보육진흥원(2013).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 서울.
- Copas, E. M. (1984). Clinical requirements for cooperating teacher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6), 49-54.

ABSTRACT

The Experience of Training Teacher for Children Care and Teaching Practice

Hwang, Hye-Young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hild Car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what role guidance teachers of the childcare practice play in a process to guide the childcare practice and what is a difficulty of experience to guide the childcare practice, and to analyze demands of practice guidance teachers for effective guidance of the childcare practice. Study problems set for these study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 what role do guidance teachers of the childcare practice play in a process to guide the childcare practice?

Second, what difficulties do guidance teachers of the childcare practice experience in guidance of the childcare practice?

Third, what is a demand of guidance teachers for effective guidance of the childcare practice?

This study conducted a depth interview targeting 10 in-service childcare teachers who work in workplace, and national, private, and home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experience more than twice of practice guidance from November, 2016 to April, 2017. Total 30 times of individual interviews by three times per a study participant were proceeded, and text message or telephone conversation were used when additional information was needed or there was a question. Contents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by examining recording and transcript based on the depth interviews, site record note, childcare practice diaries, journals of study participants, and collected materials repeatedly, so study results were drawn. If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depending on the study problems, it is as follows.

First, if a role of childcare practice teachers in a process to guide the childcare practice is examined, first, they play a role of an emotional supporter who discovers and praises advantages of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through dialogues, and of a practice helper who introduces contents of the childcare practice, schedule of childcare center, and working cautions, and who modifies and changes practice schedule for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In addition, practice guidance teachers play a role of a teaching model of preliminary teachers in classroom reorganization and linguistic

interaction with infants. Furthermore, practice guidance teachers play a role of a joint owner of expert knowledge who helps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write a teaching aid plan and make it, and play a role to share experience of real childcare teachers in childcare center life with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and to communicate. Last, practice guidance teachers play a role of a channel to help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communicate with people around them smoothly.

Second, difficulties that guidance teachers of the childcare practice feel in a guidance process of the childcare practice are as follows. Practice guidance teachers feel burdened by reorganizing physical environment composition and uncasing their own classroom, and have a difficult time being a desirable model of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In addition, in case of practice guidance of an infant class, they have a difficult time explaining a proper guidance method to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every time when characteristics of infants appear differently with overwork by a new role like a practice guidance teacher besides their original work as a childcare teacher. Furthermore, they experience difficulties by individual backgrounds of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such as form of school, department, and age, and by faithless attitude and behavior of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Third, if demands of childcare practice teachers for effective guidance of the childcare practice are examined, first, practice guidance teachers hope that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have

basic mind to love infants and active attitude to do their best over everything. In addition, practice guidance teachers want to give not only systematic theory and documentation method but also more opportunities of experiential activity such as a simulation class to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in the curriculum related to the childcare practice, and to giv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both infant and child classes to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in operation methods of the childcare practice. In addition, practice guidance teachers ask that the childcare practice is not a one-time event but is held by volunteer work or internship, and expect that criterion subdividing items is improved on evaluating the childcare practice. Furthermore, practice guidance teachers hope that a guidance manual of the childcare practice for guidance teachers is developed to reduce a deviation of the childcare practices, and ask that a resulting education is proceeded. Last, practice guidance teachers want monetary consideration and compensation such as rest or overtime pay as compensation of practice guidance work.